

영화로 보는 통일 이야기

전영선 (통일디자인연구소장)

01

영화, 분단·통일과 만나다

06

1. 영화, 시대를 품다
2. 분단의 현실에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지다

02

영화속에 그려진 분단의 자화상

20

1. 분단의 상처, 생채기로 남다
2. 분단의 상처속에 새겨진 적대감
3. 남북관계의 대타성(對他性)

03

영화적 상상력으로 통일을 그리다

40

1. 88서울올림픽, 남북관계의 시선을 바꾸다
2. 개와 늑대의 관계로 다가온 남북
3. 남북 간 어색한 만남이 시작되다

영화로 보는 통일 이야기

04

영화속에 그려진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58

1. 탈북 트라우마의 상처
2. 북한이탈주민, 우리 곁에 오다

05

영화는 현실의 자화상

76

1. 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소원
2. 북한을 바라보는 불안과 의혹의 시선
3. 남북에서 먹고 살아간다는 것

06

전선에서 생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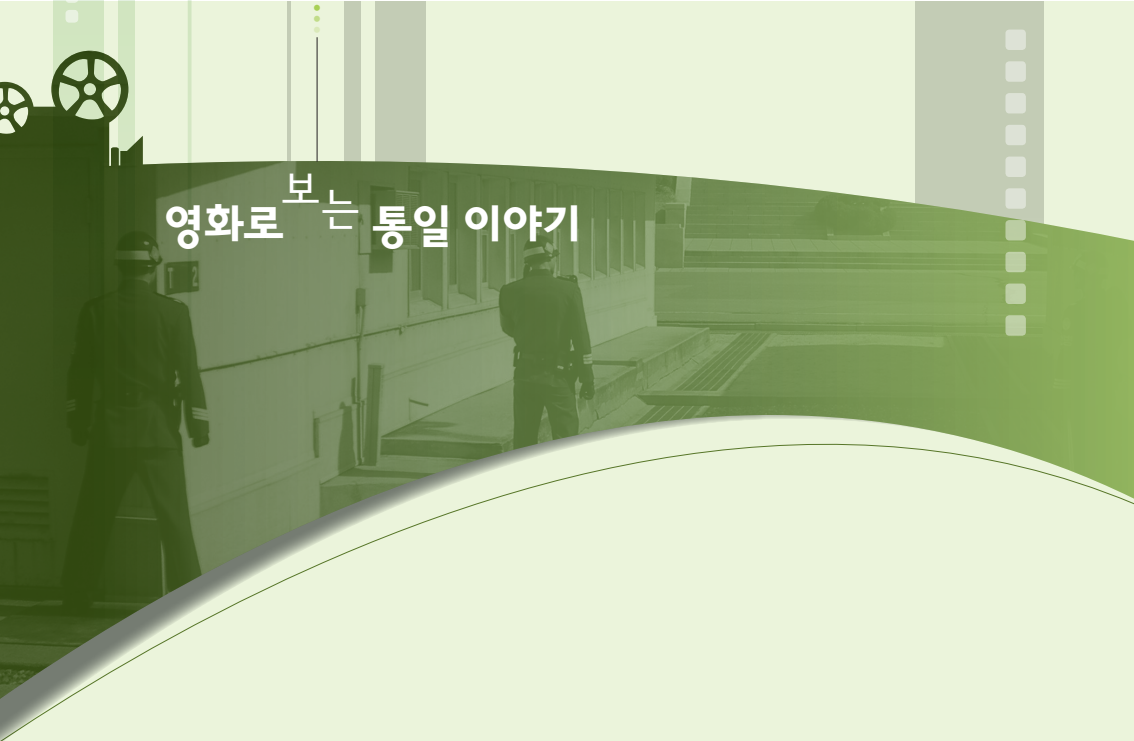
90

■ 참고문헌

96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4

영화로 보는 통일 이야기



영화, 분단·통일과 만나다

1. 영화, 시대를 품다

2. 분단의 현실에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지다

- 1) 분단과 영화의 만남
- 2) 전쟁영화, 언제나 승리로 기억되다
- 3) 분단과 전쟁 속에 엮ial린 러브라인
- 4) 이국을 배경으로 한 첩보전과 비극적 사랑

1 | 장

영화, 분단 · 통일과 만나다

1. 영화, 시대를 품다

영화만큼 대중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술은 없을 것이다. 영화는 예술과 산업의 경계에 있다. 새로운 영화가 나올 때마다 제작자들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것이 관객이다. 관객이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서 감독이나 배우의 몸값이 달라진다. 훌륭한 작품이라는 예술성과 흥행성을 모두 잡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해마다 수많은 영화가 제작되지만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는 얼마 되지 않는다. 벤처상품이 따로 없다. 성공한 영화 중에서도 오랫동안 대중의 기억에 남아 있는 영화는 더더욱 찾기 힘들다. 감독은 표현하고 싶은 예술성과 변덕스럽고 까칠한 대중의 입맛에 맞는 영화를 만들어 내야 하는 대중성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영화는 모든 것을 흡수한다. 영화 장르에는 막힘이 없다. 멜로, 스릴러, 스파이, 판타지, 에로, 조폭, 공상과학, 역사 등 영화의 소재가 되지 않은 것은 없다. 헐리우드 영화가 세계 영화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것도 영화의 보

편성 때문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할리우드 영화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할리우드에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독특한 소재의 영화들이 있다. 중국 무협영화나 일본의 닌자영화이다.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가 반영된 독특한 소재의 영화들이다. 이런 영화를 외국인의 시각으로 제작하기는 쉽지 않다. 해당 국가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서는 분단을 그린 영화가 그렇다. 남북관계나 통일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 역시 중국 무협영화나 일본 닌자영화처럼 우리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독특한 소재의 영화이다. 남북의 분단은 정치적인 분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북의 분단은 민족의 분단이자 가족의 분단이었다.

남북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70년의 세월을 지나왔다. 광복되면서부터 남북으로 나뉘었고, 국제 사회의 치열한 이념 갈등 속에 유례 없는 전쟁까지 겪었다. 전쟁의 아픔은 국가의 이념을 지나 마을로, 골짜기로, 집으로 스며들었다. 동족상잔의 전쟁 속에서 슬한 사연이 생겨났고, 전쟁의 기막힌 사연은 마을과 골짜기와 사람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은 상흔으로 남았다. 이념 대립과 분단의 날카로운 상처가 새겨졌다. 전쟁의 아픔을 비껴간 곳은 하나도 없었다. 어느 누구의 가족사를 들춰보아도 분단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분단된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분단의 수레바퀴를 거스를 수는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한반도 분단의 상처는 개인의 삶에 생채기로, 민족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반도이기에 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는 즐기차게 만들어졌다. 때로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면서 영화는 시대에 따라 현실을 비추어 주었다. 영화는 분단 현실로부터 소재를 얻었고 분단 현실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영화는 당대 사회 대중의 보편적 가치 인식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영화가 보여주는 가치관, 세계관은 대중의 보편적 정서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은유적이며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영화는 영화이다. 영화는 대중의 심리와 함께 한다. 대중의 일반적 정서를 뛰어넘는 예술이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대중문화이다. 우리의 대중문화에서



남북분단의 상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북관계가 중요한 창작 소재가 되어 온 것도 대중의 일상과 분단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대중문화는 당대 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가장 잘 반영한다. 남북을 소재로 한 영화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었다.

2. 분단의 현실에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지다

1) 분단과 영화의 만남

대한민국 영화사에 분단문제는 꾸준한 관심사였다. <자유전선>(1955년),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 <남과북>(1965), <야간비행>(1973), <특

별수사본부>(1973), <낙동강은 흐르는가>(1976), <똥이장군>(1978), <길소뜸>(1985), <남부군>(1990), <태백산맥>(1994), <쉬리>(1999), <공동경비구역 JSA>(2000), <태극기 휘날리며>(2004), <고지전>(2011),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신이 보낸 사람>(2014)에 이르기까지 분단문제는 우리 영화사의 중요한 소재였다. 이만희, 유현목, 임권택, 장일호, 김수용, 김기덕, 신상호, 강제규, 박찬욱 등 한국 영화를 이끌어 온 감독들 역시 분단문제로부터 비껴날 수 없었다.

‘영화’는 사회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며, 그 사회는 ‘영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들 영화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우리는 북한문제, 통일문제를 어떻게 바라 보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기억에 떠오르는 영화 몇 편을 돌이켜 보아도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진다. 반공영화로 대표되는 1980년대 이전의 영화와 최근의 영화는 다르다. 영화의 기법이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영화 속에 그려진 분단문제나 남북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점도 있겠지만 남북관계나 분단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는 대중의 기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당대 사회 대중의 보편적 가치 범위를 넘어서는 작품이 흥행하기란 쉽지 않다. 영화를 통해 당대 사회상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화의 시선을 통해 분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필 수 있다. 주제, 소재, 배경, 장면, 대사 등이 있으며, 인물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얹혀있다. 영화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들은 분단국의 삶(Living in a Divided Country)을 대변해 주었다. 영화는 남북관계의 현실 인식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유용한 텍스트(text)였다.

남북문제나 통일을 소재로 한 영화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 소재가 되었다. 영화 기획자들은 빠르게 대중의 기호(嗜好)에 맞는 소재와 장르를 찾아냈다. 분단의 현실 위에 다양한 상상력이 결합되었다. 남북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어떤 것도 소화해 낼 수 있었다. 전쟁의 기억도 생생했고, 이념 대결로 인해 굴곡진 인생도 부지기수였다. 남북의 분단을 소재로 다양한 장르가 결합되었다.

전쟁의 비극과 용감한 군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쟁물도 있었고, 대한민국의 몰래 숨어든 간첩을 일망타진하는 첩보대의 활약을 그린 수사물도 있었다. 간첩으로 지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랑에 빠진 미모의 스파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스파이 영화도 있다. 이념이 다른 남녀가 만나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 멜로물도 있었고, 일본을 배경으로 조총련의 음모를 박살내는 멋진 액션도 있었고, 간첩 때문에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미디물도 있었다.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다룬 영화가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진 것은 이 시대의 대중적인 정서가 분단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광복이후 1960년대까지 영화의 주요 소재는 일제시대의 항일독립투사 영화였거나 반공영화, 월남전 파병 병사들의 활약상을 다룬 군사물이었다.¹ 전쟁 영화가 많아진 것은 전쟁 자체가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하였지만 영화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았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1960년대 들면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영화를

① 장우진, 「1960년대 남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영화」, 『영화연구』, 30호(한국영화학회, 2006), 306-307쪽 : “월남 파병 시절에는 파병 용사의 활약상을 다룬 군사물이 집중적으로 다수 제작되었다. 김목의 <맹호작전>(1966)과 <독고전선>(1968), 이만희의 <냉과 열>(1967), <얼룩무늬의 사나이>(1967)와 <고보이 강의 다리>(1970) 등이 대표적이다.”

통한 정책홍보를 목적으로 1961년 6월에 공보부 산하에 국립영화제작소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영화상영에 앞서 문화영화를 동시에 상영하는 규정을 둔 영화법이 만들어졌다. 이어서 1962년에 ‘문화영화진흥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문화영화에 대한 지원이 늘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문화영화 제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²

2) 전쟁영화, 언제나 승리로 기억되다

분단과 통일을 소재로 한 영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전쟁이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영화로 보여주었다. 전쟁의 상처, 휴전으로 끝난 전쟁을 이긴 전쟁으로 기억하고 싶었다. 승리로 기억하고 싶은 욕망은 전쟁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도록 하였다. 전쟁이 주는 피해와 고통보다는 적과 싸워서 이겼다는 승리의 쾌감이 필요하였다. 용감한 군인, 용감한 국민, 일치단결로 적을 무찌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다.

<YMS 504의 수병>(1963)은 YMS 504호의 함장으로 부임한 엘리트장교 장지욱과 하사관 출신인 부함장 한중위와 함대원의 이야기이다. 고위층을 아버지로 둔 장지욱 함장과 부함장을 중심으로 한 함대원들은 처음에는 갈등하지만 작전임무가 하달되자 합심하여 적을 물리친다는 영화이다.

전쟁을 승리로 기억하고 싶은 욕망은 보이는 전쟁에 국한되지 않았다.

2 문화영화에 대해서는 이충직, 「한국의 문화영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석사학위논문, 1985 참고.

보이는 전투와 보이지 않은 전투에서 이기고 싶었다. 보이지 않은 전쟁은 이념전쟁이었다. 남북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대변했던 전쟁이었기에 보이는 전쟁은 물론 보이지 않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싶었다. 치열했던 이념 대결에서 승리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전향’, ‘귀순’이었다. 공산당원이나 간첩은 공산주의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묘사되었다. 순진하게 이론적인 논리에 속아 환상을 가졌다가 공산당의 실체를 알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한편으로 반공영화는 북한의 만행을 고발하였다. 전쟁은 이념대립의 산물이었다. 극한의 이념 대립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겪으면서 이념적 우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북한은 어떤 논리나 이유를 벗어나서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영화에서 도덕성과 명분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약자에 대한 태도이다. 여성, 아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통해 도덕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빨 달린 짐승’으로서 잔인함과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냉전시기 남북은 ‘적대적 대립 관계’를 보여 왔다. 정치, 군사,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대립하면서 적대적인 갈등 구조를 형성하였다. 영화의 앵글은 공산주의자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보면서 이념에 회의감을 느낀 사람들을 담아냈다. 반공영화의 대부분은 북한의 만행, 공산주의자들의 비인간적인 면을 드러낸다.

공산주의자의 만행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술집에서 바걸로 일하는 스파이 마가렛과 방첩대 대위 영철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운명의 손>(1954), 빨치산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귀순한다는 <피아골>(1955),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자유의 품에 안긴다는 <자유전선>(1955), <두고

온 산하>(1962년), <7인의 여포로>(1965) 등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강찬 감독의 <피아골>은 지리산의 빨치산 부대원이자 당성이 강했던 애란이라는 여성 대원이 부대원들의 만행에 환멸을 느끼고 마침내 자기 부대 대장이었던 ‘아가리’를 죽이고 홀로 산을 내려와 귀순한다는 내용이다. <자유전선>에서는 월북하였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친구를 전향시키려다 실패한 창환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창환은 전쟁이 터지자 인민군으로 참전하여 고향 양민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가 부상을 입고, 애인인 성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유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끝난다.

이만희 감독의 <7인의 여포로>는 이념보다 민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독특한 작품이다. 북한군에 포로가 된 간호장교 7명을 호송하던 북한군 장교들은 호송 도중에 중공군을 만났다. 중공군들은 간호장교를 보자 겁탈하려고 하였다. 이 순간 북한군 호송병들은 같은 핏줄을 이어 받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중공군과 맞서 싸운다. 마침내 중공군을 해치운 북한군 호송병들은 포로들을 풀어줄 수도 데려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고민하던 끝에 같은 민족인 남한으로 간다면 따스하게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국군에 귀순한다는 줄거리이다. <7인의 여포로>를 제작한 이만희 감독은 우리나라 반공영화, 전쟁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이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도 이만희 감독의 작품이었다.



이승복 이야기 책



이승복 어린이 상(像)

3) 분단과 전쟁 속에 엇갈린 러브라인

멜로물 역시 영화의 중요한 소재였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러브스토리는 설정 그 자체로서 관심을 끄는 소재였다. 사랑했던 남녀가 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비극도 있었고, 전쟁을 통해 극적인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도 있었다. <두고 온 산하>(1962)는 '6·25전쟁' 전에 흥남에 주둔했던 소련군 동포와 한국인 반공청년 사이에 맺어진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그린 영화이다. 남녀의 사랑을 그리면서, 소련의 비인도적인 만행 속에서 자유를 원하는 북한 동포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첩보물은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그려진 분단 현실의 반영이었다. 반공이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간첩을 찾아내는 수사관의 활약은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첩보물의 단골 주인공은 여자 간

첩이었다. 미모의 여성 간첩은 매력적인 영화 소재의 하나였다.

사랑에 빠진 미모의 여간첩이라는 설정은 남북의 이데올로기와 남녀의 로맨스를 결합할 수 있는 더 없는 소재였다. <운명의 손>(1954)의 주인공 ‘마가렛’이 그랬다. <운명의 손>은 술집 뼈에서 바걸로 일하는 미모의 북한 스파이 마가렛과 방첩대 대위 신영철의 운명적인 사랑을 줄거리로 한다. 부두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고학생으로 알고 구해준 신영철이 사실은 방첩대 대위였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간첩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랑 사이에서 번민한다. 마가렛은 영철을 쏘라는 간첩단 두목 박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영철을 지키려다 부상을 입는다. 영철의 품안에 쓰러진 마가렛은 영철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영철은 자신의 손에 죽기를 원하는 마가렛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방아쇠를 당긴다.



미모의 여간첩 마가렛의 사랑과 죽음을 다룬 영화 <운명의 손>

4) 이국을 배경으로 한 첩보전과 비극적 사랑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남북대결의 장은 한반도를 넘어 일본으로 옮겨졌다. 남북의 분단은 한반도 안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해외동포 사회의 분단과 연결되어 있었다. 재일동포 사회는 조총련과 민단으로 나뉘었다. 남북 분단을 배경으로 한 분단·통일영화는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한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무대로 간첩단과 첩보 요원의 대결은 이국적인 배경과 이념을 담아낼 수 있는 소재였다.

일본을 소재로 한 영화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일본을 무대로 남북의 대결을 그린 영화로는 <제삼지대>(1968), <동경특과원>(1968), <황혼의 부르스>(1968), <0시의 부르스>(1969), <동경의 왼손잡이>(1969), <국경의 밤>(1970), <굿바이 東京>(1970), <엑스포(EXPO) 칠십 동경작전>(1970), <분노의 세 얼굴>(1972), <조총련>(1974), <검은 띠의 후계자>(1976), <악충>(1976), <혈육애>(1976), <고슴도치>(1977), <표적>(1977), <오사카의 외로운 별>(1980), <안녕 도오쿄>(1985), <오사카 대부>(1986) 등이 있었다. 일본이라는 이국적인 배경에 남북 첩보원의 대결은 흥미로운 설정이었다. 여기에 주인공 남녀의 러브라인이 들어가면서 한국판 007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일본을 배경으로 하였기에 전투를 통한 국군의 활약을 그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간첩과 첩보부대 요원의 활약은 비슷했다. 일본을 배경으로 하였을 뿐 영화의 내용과 형식은 남북관계를 그린 여느 작품과 비슷했다. 일본을 배경으로 남북 요원의 치열한 대결을 벌인 남북 영화의 계보는 사하라(<인살라>, 1996), 베를린(<이중간첩>, 2003; <베를린>, 2012)으로 무대를 옮기면서 이어졌다. 이들 영화는 사하라 사막, 베를린의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준다. 이국적인 공간은 관객들에게 늘 새로운 볼거리를 보여준다. 하지만 한반도를 떠난 이국 땅에서도 남북의 분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4

영화로 보는 통일 이야기



영화 속에 그려진 분단의 자화상

1. 분단의 상처, 생채기로 남다
 - 1) 희생된 병사를 기록하다
 - 2) 전쟁비극의 주인공
 - 3) 전쟁 속에 피어나는 로맨스, 첩보 멜로
2. 분단의 상처 속에 새겨진 적대감
3. 남북관계의 대타성(對他性)

2 제 | 장

영화 속에 그려진 분단의 자화상

1. 분단의 상처, 생채기로 남다

우리 영화사에서 분단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50년대였다. 남북의 치열한 이념 대립은 끝내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슬한 비극을 뒤로 한 채 '휴전'이라는 전쟁도 아닌 종전도 아닌 상태로 막을 내렸다. 영화는 전쟁이 낳은 비극과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애쓴 병사들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1) 희생된 병사를 기록하다

남북은 치열한 이념 갈등 속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구체적인 적으로서 총부리를 마주하게 되었다. 북한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이었다. 이기는 것은 언제나 신나는 일이다. 가위, 바위, 보를 해도 이기는 게 좋다. 조건이 붙은 게임이라면 더욱 흥미롭다. 하물며 국가 체제가 걸린 싸움에서야 말할 것이 있을까? 남북관계는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 스크린에서 재현되었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전쟁은 이기는 것으로 기억되어야 했다. 이기는 것이 분명해야 했다. 반공이라는 명분이 확실했고, 전장에서 숨겨간 거룩한 희생이 있었다.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전쟁이 끝나자 우리 영화는 전쟁의 영웅을 호명하였다. 조국이 있고, 병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을 국가의 의도대로 보여주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살아 남은 자들이 전쟁영웅에게 보내는 ‘헌정’이었다.

대중들에게 승리와 우월감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전쟁물이다. 멋진 군인들이 인민군을 무찌르는 것만큼 통쾌한 것은 없다. 내로라 하는 영화감독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 전쟁영화를 만들었고, 드라마를 만들었다. 아이들의 골목놀이에서도 국군과 인민군으로 갈렸고, 이기는 쪽은 언제나 국군이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임무를 완수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군인의 모습에 열광하였다.

하지만 전쟁은 늘 승리로만 그려지지 않았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은 희생이 있어야 했다. 희생 없는 승리는 없었다. 전쟁영화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옮겼다. 적진에 뛰어들어 임무를 완수하는 해병대의 이야기를 그린 <5인의 해병>(1961), 흥남 주둔 소련군 딸과 반공청년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두고 온 산하>(1962), 공군조종사의 작전 수행 임무를 그린 <빨간 마후라>(1964),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 <적진 삼백리>(1965), <피어린 구월산>(1965) 등의 작품에서 조국의 부름을 받은 군인의 모습,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용감한 군인의 이야기를 불러냈다.

<5인의 해병>은 개성이 강한 해병대 대원들의 전우애와 적진에 들어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영화이다. 갈등도 겪고 사연도 많은 부대원들이었지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오덕수 소위를 통해 숭고한 희생을 되새겨 보는 영화였다. 대한민국의 존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보이지 않은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주는 영화이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전쟁영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 최고 배우인 최무룡, 이대엽, 구봉서, 장동휘 등의 스타가 출연했고, 해병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촬영된 전투씬은 명장면으로 남았다.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해병대 부대원의 이야기이다. 호랑이 분대장이 이끄는 분대원들은 적군과 교전을 벌이다가 한 소녀(영희)를 구한다. 부대원들은 소녀를 몰래 돌보면서 함께 하다가 부대원으로 받아들인다. 휴가를 받았다가 급하게 복귀한 부대원들은 중공군에게 피해를 입은 전선으로 투입된다. 부대원들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부대원들은 치열하게 중공군과 싸우고, 통신병인 김해병이 구원병을 요청하러 갔다. 중공군이 후퇴하고 난 다음 분대장과 해병대원들은 죽은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흐느낀다. 전쟁의 비극과 인간애, 치열한 전투장면과 전우애가 어울린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당시로는 엄청난 관객인 20만명을 동원하였다.

<빨간 마후라>는 1952년 강릉지구에 배치된 배대봉 중위를 비롯한 공군의 이야기이다. 미군도 성공하지 못한 임무 수행에 나섰다가 어렵게 작전을 성공시키고 전사하는 나관중 소령이 나온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공군 조종사를 통해 승리

의 전쟁으로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다.

2) 전쟁비극의 주인공

한반도 전역을 휩쓴 전쟁의 상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다.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전쟁의 피해자였다. 어느 가정을 들추어 보아도, 전쟁의 비극이 새겨져 있다. 남북관계를 그린 영화의 한 켠에는 전쟁을 통해 흩어진 비극적인 가족이야기가 포함되었다. ‘혈연이나 가족구성원의 이별’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런 비극의 가족사에서 엇갈린 운명, 비극적인 이별이 영화를 통해 재현되었다.

(1) 사랑하는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

<남과 북>(1965)은 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세 남녀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영화이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때, 최전방 중대 앞으로 인민군 소좌 장일구가 귀순해 온다. 장일구는 전쟁으로 헤어진 애인 고은아를 만나기 위해 귀순하였다고 하면서, 약혼한 애인 사진을 보여준다. 운명의 장난처럼 장일구가 내민 사진 속 여인은 얼마 전 장일구가 귀순한 부대의 중대장으로 있는 이 대위의 부인이었다. 고은아와 결혼하기 전 이 대위는 만약 북한에서 애인이 찾아온다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던 기억을 떠올린다. 고민하던 이 대위는 마침내 부인 은아와 장일구에게 사실을 말하고 은아를 부대로 부른다. 결혼을 약속했다 헤어진 장일구와 남쪽에서 결혼한 이 대위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은아를 보면서 이 대위와 장일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은아를 양보한다. 마침내 이 대위는 교전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자원하고, 적진으로 뛰어들다 사망한다. 이 대위의 죽음을 괴로워하던 장일구마저 절벽에서 몸을 던지는 것으로 끝난다. 전

쟁으로 인해 애인과 이별하고, 전선을 넘어 애인을 찾고 보니 국군 장교의 부인이 되어 있었다는 설정은 남과 북의 극한 상황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설정이었다.

1960년대 최고 흥행감독인 김기덕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신영균, 최무룡 등 당대 최고의 톱스타들이 출연한 영화이다. 이념의 틀바구니 속에서 전쟁 속에 엇갈린 세 남녀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정면으로 그린 영화이다. 제4회 대중상 영화제 각본상과



분단의 이름 속에 엇갈린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 <남과 북>

제3회 청룡영화상에서 각본상을 수상하였다. 남과 북의 이념 문제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은 <쉬리>(1999), <인살라>(1996) 등의 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남북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성이 되었다.

(2) 이념보다 진한 가족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피보다 진한 형제가 전쟁터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적군과 아군이 되어 만날 수 있을까? 짐작하겠지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4)의 이야기이다. 한국 영화사에서 한 획을 그은 <쉬리>의 강제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2004년에 개봉한 영화이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형과 아우가 각각 군인과 인민군으로 만났던 기막힌 사연을 영화로 옮긴 작품이다. 전쟁터에서 형제가 국군과 인민군으로 만나는 설정은 용산전쟁기념관에 있는 조각상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사건이었다.

장동건, 원빈, 이은주, 공형진 등 당대 최고의 배우가 등장하여 흥행에도 성공하였다.

종로거리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구두땀이로 살아가는 진태는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약혼녀 ‘영신’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생 ‘진석’을 위해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전쟁이 시작되자 남쪽으로 피난하던 진태는 대구역에서 징집대상으로 군용열차에 타게 된 동생 ‘진석’을 찾으러 나갔다가 함께 입대하게 되었다. 훈련받을 시간도 없이 낙동강 방어선으로 실전 투입된 진태는 대대장을 찾아가 동생 진석이 제대할 수 있는 길을 물어본다. 그리고 진태는 동생의 제대를 위해서 영웅훈장을 타기로 작정한다.

오직 동생을 제대시켜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전쟁영웅이 되어가는 진태는 수많은 전투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보인다. 전세가 역전되어 서울이 수복되자 진석은 가족을 찾아 나선다. 진석은 가까스로 영신을 만난다. 하지만 청년단장이 나타나 인민군에게 부역했던 혐의로 영신을 끌어간다. 진석은 영신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가 함께 끌려간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진태가 진석과 영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진석은 없었다. 대신 불탄 자리에 자신이 선물로 주었던 만년필만 남아 있었다. 진태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동생과 애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인민군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진석은 가까스로 도망쳐 살아 있었다. 진석은 형이 자기 때문에 인민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형을 만나기 위해 최전선으로 자원한다. 최전방 격전지에서 전투 중에 형을 만나지만 형은 이미 전쟁광이 되어 있었다. 진태는 동생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겨누었다.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진석을 알아 본 진태는 동생을

돌려보내고, 동생을 지키기 위해 인민군을 공격하다 숨진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백발이 된 진석에게 유해발굴 현장에서 진석의 만년필이 나왔다는 연락이 온다. 유해발굴 현장을 찾아간 진석은 진태의 유골을 부여 잡고 흐느낀다.

<태극기 휘날리며>(2004)는 형제 사이에도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전쟁의 비극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영화이다. “난 사상같은 것은 모르지만, 형제들끼리 총질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냐”고 묻는 대사는 영화를 통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한다. 평범하면서도 순박했던 청년이 전쟁 영웅으로서 희열을 느끼면서 인간성을 잃어가는 모습,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무참하게 희생된 시민들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고발한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프가 된 조각상

(3) 전장보다 황폐해진 인간의 초상

장훈 감독의 <고지전>(2011)은 휴전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953년 2월을 배경으로 한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애록고지가 공간적 배경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다. 이쯤되면 애록고지가 중부전선의 ‘철의 삼각지대(철원, 김화, 평강)’에 위치한 백마고지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철원평야와 서

을을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6·25전쟁 당시 이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밤낮 없는 전투가 벌어졌고, 숱한 젊은이들이 스러졌던 고지였다.

<고지전>에서 국군과 인민군이 마지막까지 갖고자 했던 고지 ‘애록고지’는 단순하게 백마고지를 상징하지만은 않는다. 영화에서도 애록고지는 ‘애록(AE-ROK)’으로 표기되었다. 왜 하필이면 영어로 표기되었을까. 여기에는 감독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영문 표기를 뒤집으면 ‘KOREA’가 된다. 전쟁이 진행되는 한반도를 상징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한반도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명명한 것이다. 남북은 치열하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지만 정작 전투 현장에서는 전쟁은 명분도 의미도 없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전투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 남는 것이 최선이었다. 왜 싸우는지도, 싸워야 하는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명령에 따라서 전투하는 전투로봇이나 다름 없었다.

<고지전>은 국군 중대장이 아군의 총에 죽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 나온 강은표 중위로부터 시작한다. 강은표 중위는 그곳에서 뜻밖에 죽은 줄만 알았던 친구 김수혁을 만난다. 진실을 조사하겠다는 강은표 중위에게 김수혁은 “네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알아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묘한 말을 던진다. 감독은 수혁의 말 속에 ‘전쟁’의 의미에 대해 복선을 깔아 두었다. 강은표가 알고자 했던 것은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의 진실인 동시에 ‘전쟁의 진실’이었다. ‘왜 전쟁을 해야 하고, 어떤 명분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없던 것’은 전쟁의 상황에 휩싸인 분단된 현실이었다. 이렇게 <고지전>은 분단구조 속에 놓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서, ‘제발 이대로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국군과 인민군이 함께 ‘전선야곡’을 부르는 장면은 단연 압권이다.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있는 인간, 그 자체였다.

영화의 주제가인 ‘전선야곡’은 원래 국군 사기 진작과 민간인의 반공정신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로 알려져 있다. 목적이 분명한 노래임에 군가와 유행가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전쟁의 시기에는 기쁨의 노래도 슬픔의 노래도 시대적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는 많지 않았다. 전쟁 과정에 아로새겨진 상처가 전후에도 쉽게 아물지 못하고 있다. 전쟁의 상처는 시간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백마고지 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 <고지전>

3) 전쟁 속에 피어나는 로맨스, 첩보 멜로

전쟁의 와중에서도 비극적인 로맨스가 만들어졌다. <쉬리>(1999)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첩보 영화와 멜로물이 결합된 영화가 탄생한 것이다. 세계적인 여간첩 ‘마타하리’의 영향이었을까? 첩보와 멜로의 주인공은 미모의 여간첩과 국군 정보장교였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여간첩들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 자신의 적이자 가장 경계해야 할 국군 장

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지령과 사랑 속에 고민하던 이들은 사랑을 선택한다. 멜로의 선택이었기보다는 공산주의 체제의 비인간성이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국군의 인간미와 도덕성이 부각된다. 아무리 사상적으로 무장을 해도 도덕성에서 앞서고, 인간성에서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첩보멜로의 원형은 한형모 감독의 <운명의 손>(1954)이다. 스파이 마가렛과 방첩대 대위 신영철의 이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영화이다. 둘사이에는 이어질 수 없는 분단의 벽이 있었다.

<운명의 손>에서 함께할 수 없었던 남녀의 사랑은 <인천상륙작전>(1965)에 이르러서는 사랑으로 이어진다. 유엔군의 기밀을 탐지하기 위해 잠입한 여간첩은 정보장교 신 대위를 만나면서 진실한 사랑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정체를 고백한다. 그리고는 북한군에 거짓정보를 흘려서 마침내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들 영화는 전쟁이나 남북의 대립을 배경으로 하면서 멜로를 버무렸다. 미녀 간첩과 반공청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의 사랑을 삽입하여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공산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한다는 설정을 통해 관객에게 어필하고자 하였다.

남북관계가 달라지면서 남북의 분단과 남녀의 사랑은 <쉬리>(1999), <간첩 리철진>(1999), <인살라>(1996), <이중간첩>(2003)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졌다. 남북의 이념대결에서 남녀의 사랑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은 죽음 이외의 별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인살라>는 미국 유학중이었던 주인공 이향이 유학생 친구들과 사하라 사막으로 여행을 갔다가 밀수업자로 오해를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받아 억류되면서 벌어지는 운명적인 사랑이야기이다. 미수교국이었던 알제리에서 출국금지를 받고 억류되어 있던 이향은 북한 출신으로 혁명전사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던 한승엽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든다. 체제와 이념을 넘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숨길 수 없는 감정에 이끌리지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모험을 시작한다. 하지만 도적의 습격을 받고, 사막 한가운데 버려지고, 두 사람은 죽음으로 사랑을 마무리 한다.

<이중간첩>은 1980년 동베를린을 통해 남한으로 귀순한 대남공작원 림병호의 간첩활약과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이다. 위장 귀순한 림병호는 당의 명령에 따라 라디오 프로그램 DJ 윤수미와 접선하라는 지령을 받고 연인으로 위장하여 접근한다. 고정간첩으로 살아가야 하는 두 사람은 위장연인 관계를 넘어 연인으로서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림병호는 북파 간첩단에 대한 정보를 북에 전달함으로써 임무를 완성한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림병호는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 남한에서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림병호에게 돌렸고, 북한에서는 림병호를 제거하여 사건을 묻으려고 하였다.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림병호는 연인 수미와 함께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 한다.

2. 분단의 상처 속에 새겨진 적대감

이념대립이 극심했던 시기 영화의 중심에는 전쟁이 있었다. 전쟁의 상

처도 깊숙이 남아 있었다. 남북이 대화하기 이전 우리 문화 속에 북한은 상대하지 못할 '원수'였다. 상대가 원수였기에 어떻게 하든 무찔러 이겨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나쁜지를 밝히고 인식시키는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라시찬이라는 멋있는 군인 아저씨가 나와서 괴뢰군을 멋지게 물리치고 구해오는 <전우>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람보보다 멋있었고, 터미네이터보다 든든했다. <전우>가 나오는 시간이면 동네가 조용했다. 텔레비전이 있는 집마다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군인은 항상 승리했다. 승리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도 분명했다. 용감하고 정의로웠다.



위장 귀순한 대남 공작원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영화 <이중간첩>

적과 아군의 도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의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노인이나 어린 아이, 부녀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도덕적 우월이 결정된다. 좋은 사람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한다. 군인들이 그랬다. 전우를 위해서 또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적이었다. 반면 나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폭력적이었다. 약자에 대한 폭력은 그 자체로서 비극인 동시에 비인간적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북한군들이 그렇게 그려졌다.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비도덕적이었다. 비인간적인 면을 극단으로 보여주는 것이 짐승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똥이장군>에서 붉은 돼지나 늑대는 곧 북한 인민을 착취하는 북한 인 그대로였다. 영화에서 남북은 그렇게 서로를 짐승으로 그렸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남북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일반인들이 가장 분명하게 마음으로 느끼는 적이었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적이었다. 그 사회가 상징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심리적인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대중문화 속에 투영된 대립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인식의 변화 양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반공을 주제로 한 만화영화 <똥이장군>

헐리우드의 영화도 비슷하다. 영화는 선악이 분명한 구도로 설정된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헐리우드 영화는 세계를 파괴하려는 악인과 지구를 지키는 선인으로 구분된다. 힘들고 어렵지만 착한 세력이 악한 세력을 이겨냄으로써 세계 평화를 지켜낸다는 구도이다. 이때 누가 적이 되는지를 통해 적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냉전체제 하에서 제작된 헐리우드의 영화에서 적은 또는 악인은 소련이었다. 영화 <록키Ⅶ>에서 미국 챔피언이 된 록키는 소련이 정책적으로 키운 복서 ‘드라고’와 일전을 벌인다. 드라고는 첨단인체공학학을 응용한 초현대식 훈련 장비를 사용하여 강력한 파워와 테크닉을 갖춘 강철 같은 인간이었다. 현역에서 은퇴한 록키가 드라고와 대전하게 된 것은 아폴로의 죽음 때문이었다. 록키를 누르고 미국 챔피

온이 된 아폴로가 드라고와 시합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아폴로가 죽자 은퇴했던 록키가 다시 글러브를 끼고 현역으로 복귀한다. 아폴로의 명예와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다. 록키와 싸우는 대상이 영국인도 아니고 프랑스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다. 당연히 소련인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승리의 쾌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강하지만 인간성 없는 나쁜 사람, 그 사람을 지극히 인간적인 록키가 돌아와 친구와 조국을 위해 멋지게 이긴다는 설정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냉전시대 인기 첩보물인 '007 영화'는 영국과 미국에서 촬영되었다. 어디에서 촬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쁜 사람들의 미사일이나 폭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미사일이 런던을 겨냥하고 있으면 영국에서 만든 영화이다. 뉴욕이나 워싱턴에 폭탄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만든 것이다. 미사일은 한적한 사막 한가운데나 남미의 밀림을 향하고 있지 않다. 뉴욕이나 워싱턴 혹은 런던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일본에서 만든 재난 영화에서 중심은 당연히 도쿄가 된다. 우리 영화 <쉬리>를 보자. <쉬리>에서 폭탄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잠실운동장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많은 일반인이 모여 있는 곳, 이곳에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만으로 긴장감이 생긴다. '중심이 파괴된다면'이라는 가정이 영화적 긴장감을 낳는 것이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되었다. 거대한 미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국가는 소련 붕괴 이후 사실상 없어졌다. 소련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미국에 맞설 수 없게 되었다. 미국과 싸우는 국가적 대

상이 없어졌다.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미국과 싸울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대상이 바뀌었다. 냉전체제 해체 이후 헐리우드 영화는 달라진 대중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몰락한 소련은 더 이상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미국과 맞서는 것은 국제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테러 집단(<트루라이즈>)이거나 인류가 직면하게 될 거대한 자연재앙(<토네이도>, <투모로우>), 지구 밖의 외계인(<에어리언> 시리즈)로 바뀌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긴장감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그렇게 인기를 모았던 007시리즈는 더 이상 인기를 누리기 어려워졌다. 사람들이 첩보물에 관심이 없어진 것도 현실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첩보물의 묘미는 팽팽한 긴장감이다. 양쪽의 세력이 팽팽한 상태에서 스파이의 활동으로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것이다. 하지만 양쪽이 이미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떨까? 흥미가 없어진다. 스파이 한두 명으로 세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스파이 영화의 약발도 떨어진 것이다. 팽팽한 세력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스파이의 활약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007도 변화하는 시대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남북관계의 대타성(對他性)

영화 <실미도>(2003)에서 보았듯이 남북은 대타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을 즐겼다. 북한이 하면 우리도 하고, 우리가 하면 북한도

했다. 북한의 대성동 선전마을의 깃발은 이러한 경쟁의 상징이었다.

강대국 속에 분단이라는 비극으로 잉태된 남북은 쓰라린 전쟁을 치루어야 했다.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 되었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문제를 뒤로 한 채 먹고사는 문제에 매달렸다. 그렇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세계 최빈국의 나라에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 전체가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시민의식은 경제 성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치열한 경쟁은 사회의 활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합의로 풀어가는 시민의식의 성장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치열한 경쟁만이 살길이었다. 그 과정에서 쌓인 분노의 감정을 풀어내는 방식을 익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배타적 경쟁의식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경제 현장이나 학교, 사회에서 축적된 분노는 비문화적 방법(음주, 향락, 스포츠 등)으로 풀어냈다. 문화적이지 못한 감정의 배출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경제 발전의 이면 속에 감추어진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었다.

경쟁의 종점은 남북관계였다. 남과 북은 전장의 경쟁을 경제의 경쟁으로 이어갔다. 휴전선으로 갈린 남과 북에서 누가 잘 사는가 하는 문제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였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가 좋다는 것을 경제적인 성장으로 보여주려고 하였다. 경제현장은 새로운 전쟁터였다. 경제를 통해 북한을 이기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표로 매진했다.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면서 사회적인 모든 문제는 대응 이데올로기 속으로 숨어버렸다. 국민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반공을 통한 통일의 길로 나서야 했다. 반공, 승공 이외의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용서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요 일탈이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기에는 분단의 틀이 너무도 강했다.

이런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물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데 익숙해 졌다. 대립상황에서 중립이나 중도는 설 자리를 잃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무엇인가 둘로 나누기를 좋아한다. 둘로 나누어 보는 것은 생각하는 데 대단히 편리하다. 가치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것 저것 따질 것도 따질 필요도 없다. 남북관계가 그랬다. 논리보다는 감성이 우선이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이다. 통일문제는 단순히 이슈와 담론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분단의 깊은 상처와 함께 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보다 넓은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문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역대립구도, 세대갈등, 언론의 틀짓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갈등은 국내의 지역갈등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³⁾

통일문제가 현실정치와 맞물려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냉전적 사유구조가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현실사회주의는 1980년대 동구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과 1990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역사 속으로

③ 유임하, 『한국소설의 분단이야기』(책세상, 2006. 8), 22쪽.

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질서는 여전히 한반도에서 완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4

영화로 보는 통일 이야기



영화적 상상력으로 통일을 그리다

1. 88서울올림픽,
남북관계의 시선을 바꾸다
2. 개와 늑대의 관계로 다가온 남북
 - 1) 사랑하지만 맺어질 수 없는 사이
 - 2) '이념도 시간이 지나면 바래진다'
3. 남북 간 어색한 만남이 시작되다
 - 1) 공동경비 구역과 공동구역의 차이
 - 2) 휴전선을 넘나드는 유령 같은 메신저
 - 3) 새로운 사업 파트너

3 제 | 장

영화적 상상력으로 통일을 그리다

1. 88서울올림픽, 남북관계의 시선을 바꾸다

분단과 함께 북한은 금기의 대상이었다. 북한 작가에 대한 해금조치가 내려진 것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지나야 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남북은 그렇게 서로 마주하면서도 외면하고 무시하였다. 한반도를 떠나 외국에서도 서로의 만남은 곧 국가보안법의 대상이었기에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으르렁거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남북관계 인식 변화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면서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국민적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시켰다.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자신있게 대한민국의 문호를 열고 세계를 보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행사를 하였다는 자신감과 세계인 속의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한반도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도 수교를 하였고, 소련도 갈 수 있게 되었다. 북한과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남북단일팀도 만들어졌다. 급기야 만화책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던 남북 정상의 만남도 실현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지나면서 남북관계는 대립의 차원을 넘어 협력 관계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88서울올림픽의 해빙무드는 창작 기간을 거친 1990년대 중반부터 남북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작품 발표로 이어졌다. 이 시기의 영화 속에서 남북은 극한적인 대립관계에서 형제적 관계로 설정되었다. 영화 <쉬리>(1998), <간첩 리철진>(1999), <공동경비구역 JSA>(2000) 등의 작품이 나왔다.

영화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만화, 드라마에서도 남북관계를 다룬 작품이 나왔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남별>이 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1994년 3권의 소설로 출판되어 백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면서 베스트 셀러 대열에 올랐다. 세계적 핵물리학자였던 이휘소 박사의 실종 사건을 기본축으로 남북한의 대립 속에서도 시베리아 개발권을 놓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남북한이 손을 잡고 핵미사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내용이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정보석, 황신혜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현세의 만화 <남별>은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만화였다. 통일 남북을 가상으로 통일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면서 남북한의 정예부대원들이 연합으로 재일동포들을 구출해 낸다는 내용의 만화였다. <남별>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일간스포츠에 연재되었다가 1·2부 전 9권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남별> 같은 작품은 잠재된 대중들의 보상심리를 반영한 작품이었다. 국제적 지위 상승에 따른 국가정체성 확인과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민적 자신감과 여망을 표현하였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대립관계에서 일정 정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적으로서 일본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에 대한 묵은 민족적 감정이 표출된 것이다.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국민들은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중들은 확실해진 남과 북의 경제 차이를 확인하면서 심리적으로 경쟁의 대상을 일본으로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2. 개와 늑대의 관계로 다가온 남북

어스름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면서 저 멀리 지평선 위로 검은 짐승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알 수 없다. 충실하게 나를 지켜줄 개인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오는 늑대인지 알 수 없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모호해지는 순간을 의미한다. 늘 그래왔듯이 ‘6·25전쟁’ 이후 북한은 ‘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런 북한이 모호한 대상이 되었다. 자신감이었다. 황무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대회를 훌륭하게 치루어 냈다. 세계를 향해서 문도 열었다. 여행자유화 조치가 내려졌다. 이제는 당당하게 세계를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남북의 치열한 경쟁에서 남한의 우위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온전한 적이었던 북한은 이제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경제 발전의 자신

감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았다. 자신있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상은 점점 낮아졌다. 동구 사회주의의 체제 전환은 이제 확실하게 다음 차례로 북한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북한은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 곧 체제개혁을 이루어야 할 존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렇게 북한의 정체가 모호해졌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은 적일 수도 있고, 동지일 수도 있는 ‘개와 늑대’의 양면적인 존재로 다가왔다.

1) 사랑하지만 뺏어질 수 없는 사이

남북 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로서 흥행에 가장 성공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쉬리>(1999)이다. 강제규 감독의 영화 <쉬리>는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당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영화 <타이타닉>보다 많은 관객을 기록하였다. 전 세계에서 자국 영화로 <타이타닉>보다 많은 관객을 기록한 유일한 영화였다. 영화사상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경신한 최고의 흥행작이다. 북한의 특급 저격수와 남한의 특수부대 요원과의 사랑과 이념문제를 축으로 한 작품이다. 소설로 다시 출판되었으며, 비디오로도 높은 판매를 기록하였다.

<쉬리>는 일급비밀정보기관 OP인 유중원과 유중원의 약혼녀이자 특수부대 요원 이방희의 운명적 사랑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현실을 그린 영화이다. OP요원 유중원과 이장길은 북의 특수 8군단 소속 남파 간첩 이방희 사건을 추적하다 미로에 빠진다. OP의 기밀이 번번이 누출되는 일을 두고 중원과 장길은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확신하고 서로를 의심한다. 이방희의 뒤를 밟은 중원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 명현과 이방희가 동일 인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남북 대표가 모여 화해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주요 인사를 저격하기 위해 총을 빼든 명현과 이를 막기 위한 중원은 서로에게 총을 겨눈다. 명현은 차마 중원을 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중원은 뒤늦게 명현이 남긴 음성메지시를 듣게 된다. 명현은 중원을 위해 CTX 위치를 알려주고 중원의 손에 죽음을 택한 것이었다. 남북의 갈등과 남녀의 사랑을 그린 구성방식은 남북 비극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성 방식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금, 그리고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현재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기약할 수 없는 다음 세대의 사랑을 기약하는 것으로 막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영화에 설정된 남북관계는 이전과 달랐다.

<쉬리>는 남북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 남북의 정치인들이 갈등을 끝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그리고 북의 정치인들이 남한을 방문하고, 남북의 정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남북 축구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다. 남북의 화해 협력을 반대하는 북한의 강경세력이 특수 8군단을 파견하면서 정치인들을 테러하려고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의 온건파를 반대하는 강경파에서 테러를 계획한 것이었다. 북한을 단일한 집단, 단일한 호전적 세력으로 보지 않았다. 북한 내부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있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북한 정치의 내부 권력을 나누어보고, 갈등이 있다는 설정은 이후 <베를린>(2012)이나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등에서 나타났다.



- ▲ 영화 <쉬리>의 한 장면
- ◀ 남한의 특수부대 요원과 북한 특급 저격수와의 사랑과 이념문제를 다룬 영화 <쉬리>

2) '이념도 시간이 지나면 바래진다'

<쉬리>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간첩 리철진>(1999)도 달라진 남북관계를 반영한 영화였다. <간첩 리철진>은 남한의 슈퍼돼지를 얻기 위해 남파된 간첩이 엉뚱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그린 블랙코미디이다.

리철진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슈퍼돼지 종자를 구해오기 위해 남파된 대남 공작요원이었다. 서해안으로 들어 온 리철진은 먼저 30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활동해 온 오 선생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한다. 리철진은 서울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는데, 하필이면 4인조 택시강도단이었다. 택시강도단에게 가방을 통째로 털리면서 빈털터리가 된 리철진은 우여곡절 끝에 오 선생을 만나고, 오 선생 집에 머물게 된다. 남한에 침투한 첫날부터 겪었던 공작금 강탈사건으로 주눅이 들었던 리철진은 오 선생의 딸 화이의 배려로 마음의 문을 열어 간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 중에 화장실로 가던 리철진은 화이를 만난다. 화이는 철진의 손바닥을 보면서 운명을 이야기하다 철진의 손바닥에 자신의 손바닥을 맞추어 본다. 화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반추한다. 철진이 오직 명령만을 수행하는 맹목적인 인간이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 태어날 때 손바닥에 손금이 생기는 것처럼 북한에서 태어나면서 운명이 달라진 것이었다. 화이와 철진은 손바닥을 마주하면서 태어난 곳이 바뀌었다면 두 사람의 운명도 달랐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게 화이를 통해 마음을 열어가던 리철진에게 명령이 떨어진다. 리철진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임무를 수행한다. 임무를 마치고 북으로 돌아가려던 리철진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진다. 남한에서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슈퍼돼지 종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슈퍼돼지 종자를 목적으로 납파된 리철진의 임무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더불어 리철진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게 되었다.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된 리철진은 소모품처럼 사라져 간다. <간첩 리철진>의 리철진 캐릭터는 엄청난 실력을 갖춘 인간 병기였지만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간첩으로 등장하면서 ‘가공할 내공을 지닌 순진한 간첩’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로 기억되었다. 영화로 상영된 이후 비디오로 판매되어 많은 인기를 모았다.

<쉬리>나 <간첩 리철진>은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아와 난민, 핵·미사일이라는 어휘가 먼저 떠오르는 북한을 보면서 이중적인 인식, 이중적인 단면을 생각하게 되었다. 적과 동지의 경계의식을 보여준다. <간첩 리철진>에서 리철진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간첩신고 포상금 1억’이라고 쓰여진 포스터를 본다. 포스터의 내용을 모르는 리

철진은 ‘1억’의 가치를 물어 본다. 돌아오는 답변은 ‘서울 주변의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라는 답변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반공’이나 ‘간첩’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유한다.

서울에서 고정 간첩으로 30년을 살아 온 고정간첩 오 선생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었다. 먹고 사는 문제였다. 오 선생이 리철진에게 뱉었던 ‘사상도 시간이 지나면 바래진다’는 표현은 먹고 살기에 바쁜 서민의 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30년 넘게 서울에서 서민으로 살면서, 이제 북한 사람도 아닌 남한 사람도 아닌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현실인이었다. 남북이 이념과 통일을 말하지만 서민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제가 더 현실적이라는 심리를 나타낸 것이다.

3. 남북 간 어색한 만남이 시작되다

이 시기 문학 작품의 상황도 비슷했다. 1990년대 금기적인 내용이 표현되기 시작하였고, 문학 작품 속에서 개인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문학작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으로는 중국에서 이복동생과의 만남을 소설로 옮긴 이문열의 ‘아우와의 만남’, 중국에서 아버지와 만나는 홍상화의 ‘어머니 마음’,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여 살고 있는 아버지를 파리로 초청해서 함께 있게 된다는 최윤의 ‘아버지 감시’, 러시아 여행중에 북한 주민과 만나는 내용을 담은 이원규의 ‘강물은 바람을 안고 운다’, 폴란드 여행 중에 북한 주민과 만나는 이호철의 ‘보고드립니다’, 압록강 접경 마을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그린 이순원의 ‘혜산가는 길’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개인적 경로를 통해 북

한 사람과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1990년대 남북 주민의 만남을 그린 소설들은 어색한 만남의 과정을 보여주었다.⁴

1) 공동경비 구역과 공동구역의 차이

<공동경비구역 JSA>(2000)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의 은밀한 만남을 소재로 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이다. 총격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의 한국계 스위스인 소피 장 소령이 책임수사관으로 파견된다. 양측의 진술서 내용은 남북처럼 달랐다. 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한 남한군이 수혁 병장과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북한군 오경필 중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장소령은 현장에 남한 군인 남성식 일병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다. 조사를 받던 남성식 일병은 건물에서 투신하여 자살한다. 진실들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남북의 군사들은 공동경비 구역에서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사이였다.

이수혁 병장이 북한군과 가까워진 것은 훈련 때였다. 이수혁 병장이 훈련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대열에서 낙오되었다. 대열을 찾아 헤매던 이수혁은 그만 지뢰를 밟아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이수혁 앞에 북한군 중사 오경필과 전사 정우진이 나타난다. 이수혁은 오

④ 문학작품을 통해 그려진 북한 주민과의 만남은 우회적이고 긴장 속에 이루어졌다. 이원규 <강물은 바람을 안고 운다>에서 북한 사람과 마주하는 장면을 “대합실로 들어갔는데 바닥에 웅기종기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나를 둘러쌌어요. 마흔 명쯤은 될 거예요. 옷차림을 보고 우리 동포들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한 사람이 통명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일본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야? 하고 말이예요. 나는 얼결에 조선사람이에요. 하고 대답하고는 벋다 달려나왔어요. 소변이고 뭐고 싹 잊어버렸다구요.”라고 표현하였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북한이나 북한 사람은 여전히 낯설고 어색한 존재였다. 짹 짹 놀라게 정상적인 반응이었다. 먼길을 에둘러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중 접경지 코 앞까지 왔다가도 “강 건너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그만 돌아가거라”(이순원, <해산가는 길>)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게 현실이었다.

경필과 정우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고, 오경필은 이수혁을 살려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수혁은 오경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수혁은 오경필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따금씩 북한 초소에서 만나 함께 어울리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었다. 장소령은 네 사람이 돈독한 관계였음을 알아낸다. 그리고 다른 북한군에게 넷이 함께 있는 현장을 들키면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정우진이 사망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부상을 치료하러 가던 이수혁은 자신의 총에 정우진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한다.

공동경비구역은 남북의 군인들이 얼굴을 마주하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에서 적이 아닌 친구로 만남을 이어간다는 설정은 비밀연애만큼 짜릿하고 극적인 설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오래 갈 수 없었다. 군인으로서의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수혁과 오경필, 정우진의 만남은 오래갈 수 없었고, 죽음과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은 이들이 가야할 예정된 결말이었다.

공동경비 구역을 배경으로 한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극적인 결말은 공동경비 구역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영화 <꿈은 이루어진다>(2010)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꿈은 이루어진다>의 모티프가 된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를 배경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남북 군인이 만나서 공동 응원을 한다는 줄거리이다. DMZ 북한 43GP 소대장은 축구광이었다. 남한의 축구 선수도 홍명보부터 박지성까지 줄줄이 읊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였다. 몰래 축구 중계를 듣던 소대장과 부대원들은 야간수색을 하던 중 멧돼지를 만난다. 멧돼지 고기로 굶주린 배를 채우려던 소대장과 부대원들은 멧돼지를 쫓다가 수색대 군인

들과 마주친다. 멧돼지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통하게 된 남북 군인들은 은밀한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은밀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남한 군인의 도움으로 축구 경기를 듣게 된 북한 군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한마음으로 응원하게 된다.

<공동경비구역 JSA>(2000)와 <꿈은 이루어진다>(2010) 사이에는 10년의 시간이 있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하나로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가 있었다. 올림픽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한다는 월드컵대회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렸다. 한국은 세계 축구 강국과 겨루어 밀리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인 4강 진출의 쾌거를 이룩하였다. IMF를 힘겹게 지나온 대한민국 국민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 준 4강 진출이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를 만나면 웬지 모르게 보이지 않게 주눅 들었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최고의 자리를 겨루었다는 자체가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축구를 통해 세계가 하나 되는 모습을 지켜 본 국민들에게 축구는 남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DMZ에서 남북 군인들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한다는 발상은 참신하였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설정이어서인지 흥행에서는 크게 실패한 영화로 남았다.



- ▲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한 장면
- ◀ 남북 군인들의 은밀한 만남을 소재로 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2) 휴전선을 넘나드는 유명 같은 메신저

남북 사이에 비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를 가로지른 휴전선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휴전선을 넘나들 수 있다면, 최소한의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은 영화의 새로운 상상력이 되었다.

김기덕 감독의 <풍산개>(2011)는 남북 사이를 오가며 소식을 전해주는 ‘풍산개’라는 별명이 붙은 청년의 이야기이다. 휴전선은 남북 분단을 의미하는 단절의 선이었다. 짧은 거리지만 오고갈 수 없는 남과 북 사이를 오고가는 유명같은 인물 ‘산’이 있었다. 철조망을 뚫고 이산가족의 편지와 소식을 전해주는 ‘산’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진다. 일을 시킨 사람들은 국정원 요원이었다.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고위 간부의 애인인 ‘인옥’을 평양에서 데려오는 일이었다. 풍산은 휴전선을 넘어 평양으로 들어가 ‘인옥’을 데리고 온다. 휴전선을 넘으면서 죽을 고비를 맞지만 무사히 일을 끝내

고 돌아 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죽음의 위기를 함께 건넌 두 사람 사이에는 애뜻한 감정이 생겨난다. 한편 산의 존재를 의심한 국정원에서는 산을 잡아들인다. 이때 북한에서는 망명한 남자를 죽이러 암살단을 보내고, 북한에서 내려온 암살단에 잡힌 산과 인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다.

‘산’은 물론 가상의 인물이다. ‘산’은 무엇이든지 서울에서 평양까지 3시간 만에 배달한다. 남북한 분단의 벽인 철책선을 새처럼 자유로이 넘나들며 사람을 비롯하여 물건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전달한다. 비무장지대(DMZ)로부터 평양까지 왕복 3시간에 해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장대 하나로 비무장지대(DMZ)를 뛰어서 가로지르고, 철책선을 넘는 것이나 국정원으로 호송되는 정보요원을 빼낸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설정이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것이다. 남과 북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이어준 브로커일 수도 있고, 남북을 오가는 정보원일 수도 있다. 남북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브로커이든, 정보원이든, 밀사이든 간에 남북을 오고가는 존재를 영화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영화는 상상이지만 이렇게 현실을 반영한다.



남북을 오가는 존재를 상상하라! 그려낸 영화 <풍산개>

3) 새로운 사업 파트너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던 남북관계 영화 속에서 <의형제>(2009)는 해피엔딩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이다. 남과 북에서 소외된 전직 남파간첩과 전직 국정원 요원이 뜻하지 않게 협력하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6년전 서울 한복판에서 의문의 총격전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그림자를 쫓던 국정원 요원 한규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정원을 나온다. 국정원에서 나온 한규는 생계를 위해 홍신소를 차리고 살아간다. 홍신소 직원으로서 한규가 하는 일은 전직의 특기를 살려 사람을 찾아주는 일이었다. 집 나간 외국인 며느리나 집 나간 부인을 찾아주는 일로 보내던 한규는 외국인 며느리를 찾아 나섰다가 위협에 처하게 된다. 위협에 처한 한규를 지원이 나서서 도와준다. 특수공작원인 지원의 상황도 한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원은 총격 사건으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한규는 총격전 현장에 있었던 지원을 한 눈에 알아보고 지원에게 협력을 제안한다. 지원과 함께 그림자를 잡아서 현상금을 나누자는 것이었다. 이렇게해서 북한의 특수 요원과 전직 국정원 요원 사이의 협력 사업이 시작되었다.

출신이 다른 두 사람이 돈 때문에 시작한 협력 사업이었기에 협력 사업은 지뢰밭이었다. 둘은 서로를 의심하지만 각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견제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색했던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 출신을 떠나 남자로서, 친구로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에게 지령이 떨어진다. 두 사람은 다

시없을 마지막 기회를 위해 협력한다.

<의형제>는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 사업이 활발했던 시기의 대중적 심리를 반영한다. 2000년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남북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동시에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의형제’라는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한 제목이다. 동시에 당시의 남북관계를 고려한 제목이기도 하다. 남북 분단의 시간이 흐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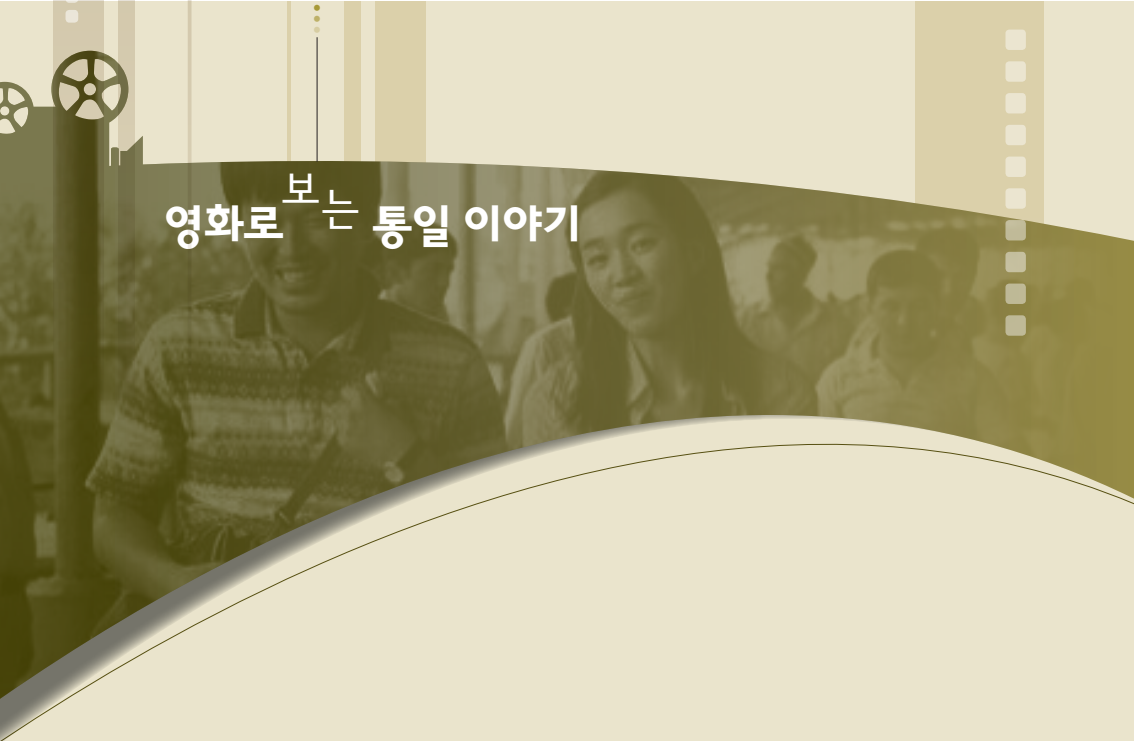
남북사이를 의형제 관계로 설정한 영화 <의형제>

이제 남북 사이에는 ‘한 뿌리’나 ‘한 가족’이라는 의미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의형제’라는 설정이 보다 현실적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남북관계는 과거의 동질성이나 뿌리의 공통성보다는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에 주목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4

영화로 보는 통일 이야기



영화속에 그려진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1. 탈북 트라우마의 상처

- 1) 한 겨울에 식량을 찾아 나선 북한 주민의 이야기
- 2) 양강도 삼지연군 보천보의 아이들
- 3)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
- 4) 북한 인권의 현실에 대한 고발

2. 북한이탈주민, 우리 곁에 오다

- 1) 탈북자 2만 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
- 2) 분단, 탈북, 새로운 디아스포라

4 제 | 장

영화속에 그려진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다. 북한의 식량난은 수많은 탈북자를 만들었고,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영화의 소재도 바꾸어 놓았다. 남북관계와 통일을 그린 영화가 여전히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등장하였다.

북한에 대한 궁금증이 영화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넘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을 드러냈다. 식량난과 어려운 정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북한 체제를 고발하였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북한의 인권, 북한의 자유에 대해 고발한다. 북한이 안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다. 북한의 현실을 그린 영화 <크로싱>(2008), <겨울나비>(2011), <신이 보낸 사람>(2014) 등의 영화가 나왔다.

북한을 탈출하였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었다. 탈북하여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남한 주민의 무딘 감성을 자

극했다. 힘들게 대한민국의 땅을 밟았지만 이들의 삶 역시 녹록하지 않다. <무산일기>(2010), <국경의 남쪽>(2006) 등에서 보여준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은 낯선 땅에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난민의 모습 그대로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정착과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북한을 탈출하였지만 어디를 오고가지도 못하고, 제3국에 머무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도 나왔다. 분단이 낳은 디아스포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이었다. 탈북하여 제3국가를 떠돌거나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나의 결혼원정기>(2005)나 <태풍>(2005)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북이 아닌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으로 흘러들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1. 탈북 트라우마의 상처

한반도 분단 상황은 북한이탈주민 문제라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겪은 현대적 이산(離散)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산의 상처는 낯선 이국 땅에 정착하면서 거주민과의 차별로 인한 정신적 억압과 긴장, 피해의식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에는 이미 트라우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트라우마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문제이다. 식량난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장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1) 한 겨울에 식량을 찾아 나선 북한 주민의 이야기

김규민 감독의 <겨울나비>(2011)는 식량난이 극심했던 시절 말로 떠돌던 인육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눈보라 치는 겨울날 먹을 것을 찾아 나선 나비와 같이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현실을 그린 영화이다. 감독이 황해북도에서 살고 있을 당시에 목격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로 굶주림에 지친 한 모자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11살 가장인 진호는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이 병든 엄마와 단 둘이서 살고 있다. 진호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산에 가서 마른 나무를 해다 장마당에 팔아 끼니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진호의 친구이자 나무를 함께 하는 성일이 있다. 진호와 성일은 친구였지만 진호는 먹을 것이 없어 매일 아침 진호의 집에 와서 엄마의 밥을 얻어먹는 성일을 싫어한다. 결국 그일로 진호와 성일은 싸우게 되고, 둘은 따로따로 나무를 하러간다. 혼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진호는 그만 산에서 사고를 당하고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게 된다.

나무하러 갔던 진호가 돌아오지 않자 진호의 엄마는 진호를 찾아 나서지만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진호의 엄마는 공안(公安)을 찾아가 아들을 찾아달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감시원에게 물어보지만 진호의 엄마에게 돌아오는 것은 편지와 냉담이었다. 진호는 산 속에서 며칠 동안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길을 헤매다 다행히 산을 내려 온다. 집으로 돌아 온 진호를 보면서 진호의 엄마는 기뻐하지만 다친 진호는 꼼짝할 수 없었다. 다친 진호와 먹을 것이 바닥났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진호의 엄마는 물을 마시면서 목숨을 연명해 나간다. 차디찬 냉방에 병든 몸으

로 굶주림에 시달리던 진호의 엄마는 서서히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정신병이 든 진호 엄마는 마침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을 개로 착각하고 아들을 죽이고 숲에 삶아낸다.

영화는 인육사건을 기본으로 한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의 식량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히 <겨울나비>를 제작한 김규민 감독이 북한이탈주민 출신이라는 점도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북한이탈주민 감독이 만든 북한 내부의 이야기는 영화 외적으로 진정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었다. 감독은 굶주림에 시달린 진호의 엄마가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밑에서 “수령님, 장군님 진호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은 가장 인상깊었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영화감독으로서 꼭 한 번은 만들어야 할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왔고, 그렇게 해서 국경을 넘게 되었다는 것을 남한 주민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영화는 진호가 꿈속에서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닭을 요리해서 맛있게 먹는 것으로 끝난다.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소재로 한 영화 <겨울나비>

2) 양강도 삼지연군 보천보의 아이들

<양강도 아이들>(2011)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 보천보리에 살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이 남한에서 띄워보낸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이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정성산 감독이 참여하면서 영화는 다분히 북한식으로 진행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광화문 세종로에서 남한 아이들이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이 북녘 땅을 가로질러 북한의 가장 먼 곳 보천보리에 도착한다. 영화의 배경이 된 삼지연군 보천보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투쟁과 관련한 유적이 있는 최고의 혁명전적지 중의 하나이다. 역설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정이다.

선물 상자에는 로봇이 들어 있었다. 로봇을 발견한 친구는 보천보 소학교 4학년 학생인 종수였다. 홀어머니, 병든 동생과 함께 사는 종수는 친구들과 함께 평양구경 가는 것이 소원이다. 장롱에 있는 오래된 예물시계까지 팔아가며 할당된 파동(破銅) 수집을 하였고, 우수한 실적으로 설발되었다. 하지만 꽃제비와 어울려 다녔다는 사실 때문에 버스에 오르지 못하고 남게 되었다. 로봇을 발견한 종수는 평양에 가지 못한 친구들과 함께 로봇삼매경에 빠진다. 평양에서 돌아온 아이들도 종수의 로봇을 보고 신기해하였다. 로봇을 갖고 싶어 하던 아이들은 종수의 환심을 사고자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치기 시작한다. 사건이 커지자 보위부는 종수의 로봇을 ‘자본주의 황색바람’으로 재판에 붙인다. 하지만 당비서는 보위부원들에게 장난감 로봇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면서 사건을 종결시킨다. 영화는 병원에 있던 종수의 동생이 죽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북한 내부의 현실들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었고, 그런 아이들에게 남한에서 보내는 선물이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3)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

<두만강>(2009)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연변 지역을 배경으로 중국 조선족 마을에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넘어오면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선족 출신인 장울 감독의 담담한 시선으로 그린 영화이다.

연변조선족 자치주와 북한 함경북도를 사이에 둔 두만강변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열두 살 창호는 북한 소년 정진과 친구가 된다. 할아버지와 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창호는 식량을 구하려고 두만강을 넘나드는 정진과 또래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강을 건넌 정진은 먹을 것을 부탁하고, 창호는 함께 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먹을 것을 구해준다. 축구시합에 참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래였지만 어느새 둘은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다. 축구를 잘하는 정진은 창호에게 얼마 후에 있을 아랫마을 아이들과 축구시합에 출전하기로 약속한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삶도 쉽지 않았지만 탈북자들에게 먹을 것과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도와준다.

하지만 겨울 식량으로 준비했던 명태를 몽땅 도둑맞고, 창호의 친누나 순희가 탈북자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마을 사람들도 탈북자들을 번거롭게 여기면서 소년들 사이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 누나가 탈북 청년에게 겁탈당한 사실을 알게 된 창호는 탈북자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고, 누나의 복수를 위해 탈북자들을 집단폭행한다. 하지만 정진은 아랫마을 아이들과의 축구시합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정진의 우정에 진심을 느낀다. 축구시합 전 한 아이의 밀고로 정진은 체포되고, 창호는 지붕으로 올라가 뛰어내린다. <두만강>은 축구를 경계로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도 어른들의

세계에 의해 굴절되고, 어른들의 이념적인 잣대로 아이들의 우정마저도 짓밟히는 현실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다.

<48m>(2013)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 지역 중에서도 탈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혜산과 장백현 사이의 국경 넓이를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북한 혜산시의 시민들이 웃는 모습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영화는 5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 48m를 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영화 <48m>는 탈북자들의 자서전 적인 이야기로 48m에서 생과사를 경험했던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한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조선족 마을 사람들이 겪는 북한이탈주민 이야기를 그린 영화 <두만강>

4) 북한 인권의 현실에 대한 고발

<신이 보낸 사람>(2014)은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영화이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금지된 북한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른다. 지하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어 아내와 함께 수용소로 끌려간 철호는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다가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정신을 잃는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혼자 살아남은 죄의식을 떨쳐내지 못한다. 그 일이 있은 후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철호는 국경 근처의 고향으로 돌아온다. 철호는 중국에서 골동품을 밀수하여 큰돈을 벌었다면서 돈뭉치를 꺼내 놓는다. 돈뭉치와 함께 철호는 직접 들었다면서 ‘지하교인을 데리고 남조선으로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철호의 말을 따른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탈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탈북하다 국경경비대에 의해 사살당한다. 탈북을 준비하던 중 철호는 다시 1급 정치범으로 고발당하게 되고, 자유를 찾아 탈북을 결심하게 된 교인들은 지하교회가 발각될까 두려움에 떨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마을 사람들을 원조해주던 중국 선교사와의 연락도 두절되면서 준비해오던 탈북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철호는 마을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탈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국경 수비도 한층 강화되었다. 견디다 못해 국경을 넘던 사람들은 국경수비대에게 붙잡히고, 철호의 계획도 발각된다. 철호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 총살형에 처해진다.

영화의 엔딩장면에서는 종교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잡혀 온 사람들이 고문을 받는 장면과 북한 지하교인의 간절한 기도가 생생하게 전달된다. 북한의 인권과 종교 탄압을 고발하고자 만든 영화의 의도와 기획이 드러난다.



- ▲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의 한 장면
- ◀ 북한 지하교회를 소재로 북한의 인권과 종교탄압을 고발한 영화 <신이 보낸 사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신이 보낸 사람>과 비슷한 주제의 영화로 N.C.하이킨 감독의 <김정일리아>(2009), 재일교포 양영희 감독의 <디어 평양>(2001), <굿바이 평양>(2001) 등이 있다. <김정일리아>는 북한이탈주민 12명의 생생한 이야기를 근거로 만든 영화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참여하였다. <김정일리아>는 관심이 높아진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영화로 2009년 세계 최대 독립영화 축제인 선댄스 영화제의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2010년 체코 프라하의 원월드 영화제에서 '올해의 작품' 상을 수상하였으며, 주요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재일교포 양영희 감독의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은 조총련계 재일교포인 양영희 감독의 가족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오랫동안 조총련계 간부로서 활동했던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북한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겪는 생활을 가족의 눈으로 그린 다큐이다. 양영희 감독은 이 영화를 제작한 이후에 북한으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 우리 곁에 오다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일상에서 만나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남북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남북 주민은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다. 삶의 방식과 문화 차이가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에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정착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문화적 소통의 문제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위주의 체제와 민족동질성의 잣대를 탈북자에 적용하여 그들이 지닌 이중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편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이 북에서 문화적으로 습득한 생활풍속상의 차이는 민족동질성을 훼손하는 이질성, 문화적 변용이 아닌 변질로 이해되곤 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는 우리 사회에 동화되어야 할 사회적인 약자, 주변적 집단으로 타자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해외 디아스포라의 경우도 거주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류 민족의 자민족 중심주의로 인한 문화적 소수자 및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⑤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남북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

⑤ 북한이탈 주민들은 일반적 남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식과 사회상식을 배우는 데 약 3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해서는 이성희·김태연, 「월남이산가족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지원망」,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4호(대한가정학회, 1993) 참조.

한국으로 들어 온 이후에도 취업문제, 대인관계 형성,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 자녀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개인적인 이력과 특성이 다양하기에 정책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주민의 상호의식 증진과 사회문화적 소양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영화는 우리 사회의 반성과 대책을 촉구한다.

1) 탈북자 2만 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

2011년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던 영화 <무산일기>(2010)는 함경북도 무산을 떠나 남한 사회에서 무산계급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험난한 정착과정을 그린 박정범 감독의 영화이다. 영화 <무산일기>는 대학시절부터 감독의 절친한 친구였던, 지금은 고인이 된 '전승철'을 위해 만든 <125 전승철>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산일기> 전작인 <125 전승철>에는 슬픈 사연이 숨어 있다. 전승철은 감독이 대학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금은 고인이 된 친한 친구의 이름이었다.

박정범 감독이 이창동 감독의 <시> 조연출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암과 싸우고 있던 친구가 쪽지를 남긴 것을 발견했다. 쪽지를 보낸 것은 몇 달 전이었는데, 한참 지난 뒤에야 발견하였다. 쪽지를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친구의 병세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였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평소 친구를 위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박정범 감독은 평소 짝어두었던 친구의 영상을 바탕으로 부랴부랴 친구를 위해 <125 전승철>을 완성했다. 하지만 친구는 이미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몰핀에 의지하여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자신을 위해 만든 영화 <125 전승철>이 완성된 이틀 후 친구는 영원한 안식을 찾아 이 땅을 떠났다. 친구가 떠난 이후 박정범 감독은 떠난 친구를 헌정하는 영화 <무산일기>를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125 전승철>에서 친구 이름 앞에 붙은 '125'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세 숫자이다. '125'에는 '하나원'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정착 시설이 있는 안성의 지역 코드가 들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을 나오면 서 호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안성지역의 코드가 부여되었다. 그런 '125'가 언제부터인가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하는 숫자가 되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족쇄처럼 따라다녔다. '125'가 세인의 관심을 받았던 것은 안성에 사는 한 주민이 중국으로 여행하려다 비자가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였다. '125'라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탈북자'로 오해를 받아서 중국으로부터 비자가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험난한 남한 정착과정을 그린 영화 <무산일기>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 대한 안정적 정착지원이 일회성이나 단기적 교육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의 체계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으로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남북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산일기>는 그렇게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견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화이다.

2) 분단, 탈북, 새로운 디아스포라

<나의 결혼 원정기>(2005)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맞선 여행을 떠났던 농촌 총각 만택이 통역관이자 커플 매니저였던 라라와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이다. 시골 농촌 총각이 결혼을 위해 멀리 중앙아시아까지 원정 가서 선을 보고 장래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만나 사랑하게 된 아가씨가 하필 탈북자라는 설정이 이채롭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결혼원정을 갔다가 가이드인 탈북 여성과의 만남을 소재로 한 영화 <나의 결혼 원정기>

서른 여덟이 되도록 결혼은 커녕 여자와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순진하기만 한 노총각 홍만택(정재영 분)에 대한 이야기이다. 몽정한 팬티를 엄마 몰래 빨다가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이 있겠느냐”는 할머니의 꾸밈을 들을 때마다 죄인이 된 심정이다. 자칭 선수라고 자랑하지만 만택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동네 친구 노총각 희철과 만택 두 사람은 마을로 시집온 우즈베키스탄 색시를 보고는 용기를 낸다. 두 사람은 아껴두

었던 결혼자금을 털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맞선 여행을 떠난다. 결혼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시작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맞선 여행에서 만택의 친구 희철은 혀 짧은 영어를 구사하며 나름 신전하는데, 답답할 정도로 순진한 만택은 번번이 퇴짜만 맞는다.

답답한 만택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통역이자 커플 매니저인 라라(수애분)이다. 라라에게는 이번 맞선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라라는 탈북자였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했고,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결혼을 성사시키고 성사금을 받아야 했다. 라라는 번번히 실패하는 만철을 위해 개인교습에 나선다. 데이트 방법도 알려주고, 우즈베키스탄 언어도 가르쳐 준다. 미팅을 하고 나서 꼭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다 자쁘뜨러’라고 적어준다. 만택은 쪽지에 적힌 ‘다 자쁘뜨러(내일 또 만나요)’를 되네이다 문득 라라를 생각하면서 쑥스러워 한다. 라라의 지원과 조언으로 만택은 마침내 데이트까지 성공하지만 만택의 마음은 이미 라라를 향하고 있었다. 세상 천지없이 순진하기만 한 노총각 만택을 보는 라라의 시선도 그리 싫지는 않다. 출국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시내구경을 하던 두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경찰과 마주한다. 우즈베키스탄 경찰은 통역하던 라라를 의심하고 가방을 뒤진다. 라라의 가방에서는 북한 여권이 나오고 라라는 꿈쩍없이 경찰에 잡히게 되는데, 만택이 나선다. 만택이 경찰과 맞서면서 라라를 피하게 한다.

만택이 우즈베크를 떠나던 날, 공항으로 몰래 만택을 배웅 나온 라라. 기동 뒤에 숨어 있던 라라를 본 만택은 절규하듯 소리친다. ‘다 자쁘뜨러’, ‘다 자쁘뜨러’, ‘다 자쁘뜨러’ 그렇게 허무하게 결혼원정기를 마치고 만택은 다시 시골 노총각으로 돌아가 흠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텔레비

전 뉴스 시간 화면 속에는 ‘한국행을 요구하는 탈북자’들의 모습이 모이고, 라라의 얼굴이 비춰지면서 라라를 만나러 가는 만택의 행복한 모습이 클로즈업 된다.

우즈베키스탄 경찰에게 붙들리게 된 라라가 만택에게 던졌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서 달려요, 어서’, 경찰을 피해 달리라는 그 말이 왜 그리 절박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왜 그 순간에 하필 그 말이 나왔을까? 복한을 떠나 중앙아시아까지 오면서 라라는 몇 번이고 이 말을 들었을 것이고, 몇 번이나 내뱉었을 것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리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었을까?

뚝 부러지고 당찬 아가씨 라라가 멍청하게까지 보이는 순진남 노총각 만택에게 호감을 느낀 것은 자신을 위해 달려주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달리라’는 말을 들은 만택은 라라를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자기가 무슨 슈퍼맨이라고 한낫부터 시작된 달리기는 밤이 되어야 겨우 끝난다. 땀으로 범벅이된 만택을 보면서 라라는 안타깝게 묻는다. ‘달리란다고 그렇게 달리느냐’고, ‘왜 달리라고 했는지 이유도 물어보지 않느냐’고 묻는다. 만택은 대답한다. “누구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라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고,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한 것 뿐이었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인냐고 물어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때로는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세상사가 어디 그런 일들뿐이겠는가. 애써 물으려 하지 말고, 가

슴으로 공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라라가 본 것은 희망이 아니었을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신을 믿어주는 만택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한국이라면 라라의 한국행은 무척이나 행복했을 것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4

영화로 보는 통일 이야기



영화는 현실의 자화상

1. 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소원

- 1) 적과의 유쾌한 동침
- 2) 빅토리 코리아의 짜릿한 감동

2. 북한을 바라보는 불안과 의혹의 시선

- 1) 북핵문제와 북한체제에 대한 시선
- 2) 북한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 3) 북한은 현실적 위협이다

3. 남북에서 '먹고 살아간다'는 것

- 1) 서민이 된 고정 간첩의 일상
- 2) 은밀하지 않으면 위대하지도 않다

5 제 | 장

영화는 현실의 자화상

1970년대까지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영화의 주류는 반공영화였다. 반공을 기본 줄거리로 하면서 남녀의 사랑이나 첩보를 버무렸다. 반공영화 일변도에서 내용이 달라진 것은 남북관계의 변화였다. 남한의 경제적 우위가 분명해지면서 남북의 대결은 대중의 긴박감을 자아내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상상이 영화로 옮겨졌다.

1. 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소원

1) 적과의 유쾌한 동침

전쟁의 비극은 전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전쟁은 마을에서도 있었다. 보복차원의 학살 속에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 한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좌익과 우익은 형제와 핏줄을 가리지 않았다. 이런 남북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통일의 실마리를 찾았다. 영화 <적과의 동침>(2011)은 마을

에서 일어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블랙휴먼 코미디물이다. <적과의 동침>은 김주혁과 정려원이 출연한 영화보다는 의치증을 가진 남편과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난 부인의 이야기를 영화로 옮긴 1991년 제작된 조셉 루빈감독의 ‘적과의 동침(Sleeping with enemy)’이 먼저 떠올리게 한다.

박건용 감독의 <적과의 동침>은 전쟁 당시 평택지역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항일운동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만주에서 만났던 김정웅과 설희가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다시 만나는 이야기이다.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석정리 마을에 인민군 장교가 된 김정웅이 나타난다. 문학청년에서 인민군 장교가 된 김정웅은 만주에서 보았던 박설희를 한 눈에 알아보았다. 설희도 뒤늦게 정웅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설희는 반공청년단의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다.

설희는 인민군의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였고 정웅은 그런 설희를 은근하게 감싸주었다. 전세가 역전되고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정웅에게 새로운 명령이 하달된다. 마을사람을 몰살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이었다. 연대장의 명령에 고민하는 정웅은 마을 사람을 살리기로 하고 소대장을 설득한다. 소대장은 서북청년단에게 가족이 몰살당한 아픔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로 한 계획은 연대장에게 발각되었다.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을 방공호로 끌고 나오고, 처형하려는 순간 미군의 공격이 시작된다. 미군의 공격으로 인민군이 죽는다. 정웅과 설희도 서로를 껴안은 채 죽어간다. 비극적인 순간이었지만 영화는 평온하다. 만주에서 문학청년으로 설희를 만나 불러주었던 ‘메기의 추억’이 은은하게 깔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평온함 그 자체였다. 죽어야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 현생

의 이념과 갈등에서 비로소 벗어난 평안함이었다.

2) 빅토리 코리아의 짜릿한 감동

<코리아>(2012)는 1991년 있었던 남북 단일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문성현 감독의 영화이다. 남북한은 1991년 2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4차 남북체육회담에서 탁구 남북단일팀 구성에 전격적으로 합의한다. 그리고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단일팀인 ‘코리아’로 출전한다. 남북한 단일팀 코리아는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대회 9연패를 노리던 탁구 세계 최강 중국과 격돌하였다. 남북이 라이벌이 아닌 한 팀이 되어 출전한 여자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감격의 우승을 일구어 낸다. 정상에 오른 남북의 선수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으며 경기장은 ‘코리아’의 합성으로 가득했다. <코리아>는 남북이 하나가 되었던 46일간의 도전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막바지로 치닫던 1990년 남북은 정치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급접촉을 시도한다. 그리고 축구와 탁구에서 단일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단 이후 최초로 어렵사리 결성된 남북 단일팀 코리아는 이념을 떠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었던 감동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배우 하지원과 배두나가 각각 남북의 선수로 출전하여 국가대표 못지않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실감나게 연출했던 영화로 기억된다. 오른손 잡이인 배두나는 자신이 맡았던 리분희 선수가 왼손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왼손으로 탁구연습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 북한말 강습을 받아 리얼리티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 선수들이 만나 갈등을 겪다가 마침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승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에서 중국선수의 비열함을 부각시킨 부분이나 남북한 선수들의 러브라인을 설정하였다가 보위부원들에 의해 발각되는 사건은 영화적 상상력이 다큐의 감동을 깎아 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린 지 10년 만에 영화로 재현된 '코리아' 팀의 이야기는 스크린을 통해서나마 한반도 통일을 꿈꾸었던 통일의 염원이 반영된 영화였다.

앞서 언급한 <붉은 이주어진다>(2010)는 비록 상상이기는 하지만 남북의 군인이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는 즐거리이다. 월드컵의 열기를 남북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상상력이 반영된 영화였지만 대중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남북단일팀을 소재로 한 영화 <코리아>



영화 <코리아>의 한 장면

2. 북한을 바라보는 불안과 의혹의 시선

1) 핵문제와 북한체제에 대한 시선

세계가 북한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핵문제였다. ‘9·11 사건’ 이후 통제할 수 없는 핵무기의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는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게 되면서 북한의 핵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아직까지 미결로 남았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의 핵개발 자체의 문제로,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우려이다. 다른 하나는 핵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체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였다. 북한 핵개발을 비롯하여 테러집단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영화로 <베를린>(2012)과 <백악관 최후의 날>(2013)이 있다.

영화 <베를린>(2012)은 국제적인 음모 도시가 된 베를린에서 벌어지는 북한 내부의 권력을 중심축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베를린은 통일도시로 기억되지만 영화 <베를린>의 무대가 된 베를린은 통일 도시가 아니었다. 베를린은 무기밀매와 암살이 횡행하는 국제적인 음모가 숨겨진 도시였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기를 거래하면서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독일주재 북한 대사 리학수는 외화를 벌기 위해 불법 거래를 마다하지 않고, 여성 요원(연정희)를 이용하여 성로비까지 활용하면서 공화국을 위해 열심히 사업을 한다. 하지만 그런 리학수에게 돌아오

는 것은 숙청이었다. 권력을 향한 치열한 갈등 속에서 라이벌의 견제를 받으면서 목숨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평양에서 수만리 떨어진 베를린이 평양에서 일어나는 권력투쟁에 휩싸이게 된 것은 최고지도자의 건강 이상 때문이었다. 최고지도자의 건강이 위급해지면서 북한 권력 내부에는 권력을 둘러싼 갈등의 회오리가 몰아친 것이다.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악화 소식이 알려졌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 소식은 이후 북한의 권력구도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최고지도자의 권력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포스트 김정일 체제가 과연 안정적인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당시 김정일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철이나 김정은의 나이는 아직 20대에 불과했다. 정치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막강 권력을 행사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였다. 그런 북한체제에서 예상되는 것은 권력 실세를 중심으로 한 권력투쟁과 그로 인한 혼란이었다. <베를린>은 이런 북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북한도 정치체제이고 정치체제의 속성상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가 있을 것이라는 설정이었다. 특히 절대적 권력의 공백 이후 발생할 북한 체제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 내부의 권력암투를 소재로 다룬 영화 <베를린>



영화 <베를린>의 한 장면

2) 북한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2013년에 개봉한 <백악관 최후의 날>은 북한 출신 테러리스트가 백악관을 점령하여 미국 대통령을 인질로 삼는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DMZ에서의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을 감행하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최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이때 북한 출신의 테러리스트 '강'이 한국 측 경호요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백악관으로 들어가 양국의 요인들을 인질로 삼는다. 강을 중심으로 한 테러리스트들은 백악관을 점령하고, 대통령과 관료들을 인질로 붙잡는다. 강의 요구는 동해에 있는 제7함대 및 DMZ와 한국에 주둔한 미군 28,500명의 철수, 그리고 미국 내 모든 핵미사일을 통제할 수 있는 암호코드였다. 강이 요구한 미 7함대 및 DMZ 미군의 철수는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미국의 장성은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72시간 내에 함락당할 것이라는 보고를 한다. 북한의 위협이 크다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정이다. 테러리스트들에게 점거당하고, 인질로 잡힌 고위 관료들이 하나씩 죽어 나가기 시작한다. 테러리스트의 의도는 대통령의 침착한 대응과 전직 경호요원의 용감한 활약으로 무산되지만 북한이 미국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3) 북한은 현실적 위협이다

김동원 감독의 <R2B : Return to Base>(2011)는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제의 영화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경고를 담은 영화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조종사들로 구성된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에 최

연소 조종사이자 천재적 소질을 갖춘 조종사 태훈이 부임한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지만 장난기 가득한 태훈은 고난도 비행을 시도하면서 에어쇼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블랙이글스에서 쫓겨나 21전투비행단으로 전출된다.

그러던 어느 날 초계비행 도중 적기를 만난다. 적기는 귀순의사를 표시하고 태훈은 유도비행을 시작한다. 적기의 귀순의사는 거짓이었다. 적기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서울을 유린하기 시작하고, 남북 조종사 간의 교전이 벌어진다.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은 본격적인 핵공격의 신호였다.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핵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는 정보가 들어온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준비한다.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일 것이 분명해졌다. 21전투비행단은 단독으로 미사일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 최소 인원으로 7분 안에 끝내야 하는 작전이 시작되었다. 적진으로 들어간 태훈은 마침내 작전에 성공하고 돌아온다.

전투기를 이용한 북한의 기습이라는 설정이 새롭다. 우리 나라 영화 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공중액션을 다룬 영화이다. 공중전을 재현해보겠다는 의도와 북한이라는 대상으로부터 유발되는 ‘상상의 공포’가 영화의 긴장감을 높여준다. 북한의 기습 공격과 북한 내의 불안정한 정치로 인한 핵전쟁의 가능성이 영화적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가 되었다.

3. 남북에서 ‘먹고 살아간다’는 것

1) 서민이 된 고정 간첩의 일상

우민호 감독의 <간첩>(2012)은 고정 간첩으로 활동하는 간첩들의 이야기이다. <간첩 리철진>에서 살짝 선보였던 고정 간첩의 힘겨운 생존투쟁을 소재로 한 코믹 액션물이다. ‘간첩질 10년이면 작전도 생활이 된다!’, ‘생활 밀착형 리얼 첩보극’이라는 홍보 문구대로 남한 생활 속에 신분도 정체성도 모호한 상태에서 10년 만에 내려온 지령을 받고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 <간첩>의 한 장면

간첩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딱딱하다. 공작금을 받아가며 스파이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기에는 살아가는 현실이 힘겹다. 복덕방을 운영하면서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복비 10만원 때문에 머리끄덩이를 잡고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남파되어 농촌에 정착한 우 대리는 소값 폭락에 못살겠다면서 촛불시위를 주도한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받았던 공작금이 끊겨 생활이 힘들어지자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밀수해 판매한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송금해야 하는 김 과장의 삶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의 모습 그대로이다. 신념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던 시절을 뒤로 하고, 호구지책을 걱정해야 하는 간첩에게 주어진 임무는 6자회담을 지휘하다 망명한 외무상 리용성을 암살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활고에 찌든 이들에게는 리용성 암살보다 관심이 가는 것은 망명대가로 받은 보상금이었다. 하지만 암살작전은 실패하고, 김 과장의 신분도 국정원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김 과장은 북한에 남은 가족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가족도 중요하였다. 가족의 안전을 협상 조건으로 국정원과 손을 잡은 김 과장은 북한에서 파견된 최고의 암살자 최 부장 체포에 협조한다. 최 부장이 죽고 난 다음 김 과장은 국정원의 감시를 받지만 남북의 가족을 걱정해야 하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고정 간첩으로 파견되었지만 이념도 퇴색하고, 공작금도 끊어져 하루 하루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보여준다. 지루하던 일상에 변화를 준 것은 외무상의 망명이었다. 6자회담을 지휘하던 외무상의 망명으로 10년 만에 지령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당의 지령보다 중요한 것은 망명의 대가로 받았을 포상금이었다. 포상금만 있으면 생활이 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화는 그렇게 이념이 퇴색하고, 일상에 찌들어 버린 어찌면 현대인의 한 사람일 수 있는 서민의 일상이 반추되어 있다. 남북관계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이념보다 경제라는 것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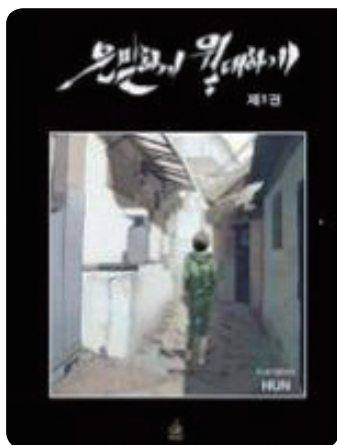
2) 은밀하지 않으면 위대하지도 않다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는 인터넷 웹툰으로 인기를 모았던 것을 장철수 감독이 영화로 옮긴 작품이다. 북한의 남파특수공작 부대인 5446부대 출신의 최고 공작요원 원류환, 리해랑, 리해진이 남한 사회에서 펼치는 힘겨운 투쟁기이다.

주인공 원류환은 북한의 남파특수공작 부대인 5446 부대에서 최고의 경쟁을 통과한 최우수 요원이다. 20000:1의 경쟁을 통과한 전설의 요원으로 다른 요원에게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조국통일이라는 원대한 사명을 안고 남파되었지만 지금 하는 일은 신분을 위장하여 주위의 의심을 피하는 일이었다. 원류환은 ‘봉구’라는 이름으로 슈퍼에서 잡일을 거들면서 어리버리한 동네 바보로 살아간다. 주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스꽝스러운 바보 역할을 한다. 하는 일이라는 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기, 동네 꼬맹이한테 맞기, 심지어 거리에서 똥도 싸야 한다. 만화이기에 가능한 설정이다. 원작은 인터넷 웹툰 만화였던 만큼 상황은 다소 황당하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웹툰 만화에서 조회수가 3억 뷰에 달할 만큼 인기 만화였다.


그런 원류환에게 친구이자 같은 부대 출신의 공작원 리해량이라는 또 다른 공작원이 있었다. 원류환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춘 리해량은 북한 최고 위층 간부의 사생아였다. 리해량은 가수지망생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리해진이라는 또 다른 남파공작원이 찾아온다. 리해진은 원류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최연소 남파 공작원이었다. 동네 바보, 가수 지망생, 고등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살던 이들에게 자살 명령이 내려진다. 남파공작 부대인 5446부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부대의 해체를 명령한 것이다. 원류환은 자신이 그리던 어머니 소식을 물어본다. 죽을 때 죽더라도 어머니의 존재는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다. 명령에 따르라는 것뿐이었다. 좌절한 원류환은 5446부대원들을 제거하기 위해 남으로 내려온 부대장과 대원들에게 맞서고 끝내 숨을 거둔다.

남북관계를 그린 영화이고, 남파공작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지만 정작 화제가 된 것은 영화의 주인공이었다. 순정만화 주인공 같은 김수현, 이현우, 박기웅이라는 꽃미남이 캐스팅되면서 영화의 줄거리보다 출연진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극장에서는 김수현이 등장할 때마다 여성 관객의 탄성과 환호가 터졌다고 한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북한 공작원들은 하나같이 훈남인가요?”라는 댓글이 넘쳐났다. 남북 대립의 상징인 간첩의 이미지가 흉악범이나 범죄자의 모습에서 평범한 일상인의 모습을 지니 꽃미남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남북관계도 진정성이나 사실성보다는 만화적 허구로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음을 보여준 영화이다.



- ▲ 인터넷 웹툰을 소재로 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한 장면
- ◀ 만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4



영화로 보는 통일 이야기

06

전선에서 생활로



전선에서 생활로

남북관계를 다룬 영화에서 가장 많은 주제는 반공이었다. 반공이라는 주제가 온전하게 연출가의 몫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남북관계를 다룬다는 주제 자체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가 그렇듯이 남북관계를 그린 영화는 이런 저런 이유로 주목을 받았다. 국가가 개입하기도 하고, 때론 분명한 목적을 가진 단체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반공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메가폰을 잡았던 이만희 감독이 <7인의 여포로>에서 북한군을 묘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반공법 혐의로 구속되었던 사건은 당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과 대중의 인식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남북의 분단과 통일을 그린 영화는 ‘반공 영화’, ‘빨갱이 영화’, ‘이산가족 영화’, ‘이데올로기 영화’, ‘전쟁 영화’ 등 다양하게 불려왔다. 명칭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 즉 역사성을 의미한다. 명칭의 변화는 곧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분단문제를 소재로 하더라도 거시적으로 보면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보인다. 냉전시대와는 달리 분단의 장벽은 많이 알

아졌다. 국가 주도에서 민간이 참여하면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변화 때문이다. 분단영화는 오랜 기간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단’이라는 거대 담론이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대중문화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현실의 비극이 너무나 컸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였다. 전쟁의 비극은 한반도에 살아가는 개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가족이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흩어졌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자 가족을 찾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전쟁의 비극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영화의 주제가 되었다. <태극기 휘날리며>(2004), <고지전>(2011) 등의 영화가 나왔다. 종전 60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상처는 우리에게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왜 전쟁을 했고,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왜 평화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생생한 교훈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반공주의적인 시각이 지배했던 시기를 지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남북문제를 보기 시작하였다. 88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문화적으로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전쟁을 치른 폐허의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그 한강의 기적을 바탕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민족행사인 올림픽을 치러냈다. 남북의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이겼음을 세계로부터 확실하게 확인받는 행사였다. 이제 북한은 우리의 경계 대상이기도 하지만

통일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대중들에게는 일본이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 우리의 적은 바다 건너 일본으로 돌려졌다. 남북이 손을 합친다면 일본과도 한번 겨루어 볼 만하다는 생각이 싹텄다.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남북이 손을 합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현세의 ‘남벌’이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남북 사이에는 무엇인가 오고가는 은밀한 만남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일본과 싸워도 이길 것 같았다. 남북은 당연히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스크린에서는 남북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남한의 우위가 확실해진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연속된 자연재해와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체제 위기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1990년까지 6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과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1,140여명이 입국함으로써 연간 천명 시대를 열었으며, 이후 매년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늘어났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경제난,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이라는 용어도 자연스럽게 북한을 대신하는 단어가 되었다.

낯선 남한에서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소수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남북한 사회의 상이한 체제로 인한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남한 사회의 선택과 자율적 관행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되는 무시, 몰이해, 소외, 외로움 등의 심리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긍심과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감 상실과 아노미(anomie)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매년 급증해 왔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과정에서 부적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불만은 집단적 행동으로 나타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의 적응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분단 70년을 지나면서 체제 차이로 인해 증폭된 문화적 차이가 낯선 문화 환경 속으로의 접근이라는 적응의 문제로 나타났다.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거나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영화들은 남북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북문제는 다양한 주제의 영화로 다가왔다. 북한 사회에 대한 내부 고발적인 영화도 만들어졌고, 한반도 분단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제의 영화도 만들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위험한 테러집단으로서 북한을 그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의 대상으로서 공존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삶이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가 영화 속으로 들어왔다. 때로는 다큐의 형식으로, 때로는 코믹으로, 때로는 액션으로 영화는 분단 문제를 그렇게 나름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왔다.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북의 공존을 시험하는 영화들이 등장하였다. 영화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어색한 만남이 스크린의 소재가 되었다.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남북 주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

작하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만남의 광장>, <태풍>, <그녀를 모르면 간첩>, <나의 결혼원정기>, <적과의 동침>, <크로싱>, <간 큰 가족>, <휘파람 공주>, <천군>, <웰컴투 동막골>, <유령>, <국경의 남쪽>, <남남북녀>, <태극기 휘날리며>, <공동경비구역 JSA>, <꿈은 이루어진다> 등의 작품에서 남북의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반공영화의 시절을 지나면서 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작은 통일을 꿈꾸어 보기도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도 나왔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북한 주민의 탈북으로 이어졌다. 국경을 넘은 북한이탈주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제적인 이산(離散)이라는 점에서 디아스포라적인 양상을 보인다. 어떤 이유든 자신이 거주하던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남한 사회에서 문화적 소수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 방식으로 차별을 받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떠나 해외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이나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은 새로운 이산 그 자체였다.

최근의 분단 소재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은 간첩이다. 황장엽 노동당 비서는 망명 기자회견에서 고정간첩이 5만 명이라고 하였다. ‘간첩’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간첩이 많아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간첩은 남북관계를 그린 영화의 가장 일반적인 소재로 등장한다. 간첩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임무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욱 힘들어 보인다. 간첩이라고 해서 긴장감도 없다. 총격전이며 기밀문서를 파내는 설정도 없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전은 간첩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있다. 간첩보다는 해킹이 더 위협적으로 보인다. 총을 몰래 가슴에 품고, 민첩하게 정부 기관에 들어가 문서를 찾아오는 간첩의 모습이 오히려 낯설어 보인다. 간첩이라고 보기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닮아 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간첩이라고 해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일은 막막한 서민일 뿐이다. 통일문제도 이제는 남북이 함께 하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독일 통일이 실현된 이후 25년이 지나면서 통일 이후의 삶의 문제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이제 생활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새로미, 「남북 화해협력시대 분단영화에 관한 연구: 쉬리, 웰컴 투 동막골, 태풍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수현, 「한국분단영화의 이데올로기의 변천: <쉬리>이후 한국분단영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영상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의수, 「한국 분단영화에 관한 연구: 분단영화의 장르적 정의와 진화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영상전공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종철 외,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제도개혁과 가치합의』, 통일연구원, 2005.
- 변재란, 「남한영화에 나타난 북한에 대한 이해」, 『영화연구』, 한국영화학회, 2001.
- 손은경,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분단영화의 지배적 재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송현호, 「한국영화 속에 그려진 남북관계표상의 변화와 그 이념적 차이에 관한 연구: 태백산맥(94년), 쉬리(99년), 웰컴투 동막골(2005년)」,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유임하, 『한국소설의 분단이야기』, 책세상, 2006.
- 이경은, 「<쉬리>에서 <공동경비구역 JSA까지>: 남북관계를 다루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에서 보여지는 민족국가 서사에 대하여」, 『영화문화연구3』,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상이론과, 2001.

- 이명자, 『영화로 만나는 남북의 문화』, 민속원, 2011.
- _____, 「남북한 코미디 영화 비교: 로맨틱 코미디의 성적·계급적 갈등의 재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이성희·김태연, 「월남이산가족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지원망」,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4호, 대한가정학회, 1993.
- 이준서, 『‘통일 이후 통일과정’으로서의 독일 통일영화』, 집문당, 2006.
- 이충직, 「한국의 문화영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석사학위논문, 1985
- 장우진, 「1960년대 남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영화」, 『영화연구』, 30호(한국영화학회, 2006).
- 정수연, 「한국에서의 북한영화 실재에 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5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 조종흡, 「미시·거시 영화텍스트 분석의 통합가능성 연구: 연구방법을 위한 이론 세우기」, 『영화연구』, 33호(한국영화학회, 2007).
- 최용성, 「북한·북한관련 영화와 통일교육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29』,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2.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목록

- | | |
|------------------------|--------------------------|
|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 23 북한의 대남전략 |
|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 24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
| 03 먹거리를 통해본 북한 현실 |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
|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 27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
| 06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 28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
| 07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 |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했나? | 30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
|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
|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
|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
| 12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 34 강성대국의 허와 실 |
|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 35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
|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 36 북한사람이 들려주는 북한이야기 |
| 15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 37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
|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 38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과 과제 |
|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 39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
| 18 북한의 의료실태 | 40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
|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 41 북한의 양면성 |
|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 42 통일과 인문학 |
| 21 북한의 체육실태 | 43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북한의 교통 이야기 |
| 22 북한 문화재 실태 | |

